

Horn
no.14

House of Matters no.14

INTRODUCING

moogsick / 감상주의 / 자카 / 스룩산 / ryuzimoto / SongChico / denim

FULL REVIEW

감상주의 / 자카 / 온암 / Indie Alse / 예리 / moogsick / 스룩산

CLASSIC REVIEW

온암 / 감상주의

FEATURED

온암 / ryuzimoto / SongChico / 스룩산 / moogsick / denim

EDITORS' PICKS

감상주의 / snxo / SongChico / 자카 / 스룩산 / BlackMatter / 온암

DESIGN

nhana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Introducing

04

Full Review

10

Classic Review

42

Featured

49

Editor's Pick

63

Introducing





Faith of a Mustard Seed

Mustard

24.07.26

1. Show Me The Way (feat. Kirk Franklin) / 2. Up Now (feat. 42 Dugg, BlueBucksClan & Lil Yachty) / 3. Pressured Up (feat. ScHoolboy Q & Vince Staples) / 4. One of Them Ones (feat. Quavo & Rob49) / 5. Parking Lot (with Travis Scott) / 6. 7 To 7 / 7. A Song For Mom (feat. Charlie Wilson, Masego & Ty Dolla \$ign) / 8. Worth A Heartbreak (feat. Blxst & A Boogie wit da Hoodie) / 9. Truth Is (feat. Roddy Ricch) / 10. Mines (feat. Charlie Wilson, Future & Ty Dolla \$ign) / 11. One Bad Decision (feat. Ella Mai & Roddy Ricch) / 12. Yak's Prayer (feat. Kodak Black) / 13. Ghetto (feat. Lil Durk & Young Thug) / 14. Pray For Me

Kendrick Lamar와 Drake 디스전의 하이라이트로 씬을 뜨겁게 달군 "Not Like Us"의 중심에는 프로듀서 머스타드(Mustard)가 있었다. 그간 수많은 래퍼에게 수준급 비트를 제공하면서도 수상하리만치 차트와 연이 없었던 그에게 "Not Like Us"의 빌보드 핫 100 1위는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허나 그는 마냥 성공에 취하지 않은 채 뛰어난 작품들을 들고 리스너 앞에 나타났다. 자신을 대표하는 장르인 래칫을 잠시 내려놓은 채 무게중심을 분산한다는 선택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BLUE LIPS>의 절정에 오른 품을 이어가는 ScHoolboy Q의 벌스, 호소력짙은 보컬로 킬링트랙을 장식한 Ty Dolla \$ign 등 서부 아티스트의 활약이 돋보인다. 하지만 본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외연의 확장에 있다. 실질적인 오프닝 "Up Now"에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고조시킨 Lil Yachty, 특유의 멜로딕 랩 퍼포먼스를 보여준 Young Thug과 침명크 소울 스타일 샘플링에 트랩의 작법을 결합한 리드 싱글 "Parking Lot"의 Travis Scott까지 적재적소에 남부 래퍼들을 기용하는 머스타드의 손길은 LA를 벗어나서도 여전히 날카롭다. 가스펠트랙으로 수미상관 구조를 완성하는 "Pray For Me"에 이르러 앨범을 마무리 지을 때 청자의 몰입감은 최고조에 다다른다. 음반을 수놓았던 화려한 피처링 없이도 목소리만으로 크나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엔딩은 우리로 하여금 머스타드의 뜨거운 진심을 깨닫게끔 한다. 아버지 없이 자라난 소년이 빌보드 1위 프로듀서가 되기까지 그를 도운 모두 이들에게, 머스타드에게, 머스타드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웨스트코스트를 위해, 힙합 전체를 위해 기도를.

by moogsick



The Eternal Now

Raz Fresco X DJ Muggs

2024.07.27

1. The Eternal Now / 2. Memory Lane / 3. Look What You Made Me Do / 4. Smoke & Mirrors / 5. Blood Money / 6. Ghost of Garvey (feat. Gritfall) / 7. King Tubby / 8. Blow the Spot Up / 9. Fake Beef / 10. World Peace / 11. Pan's Labyrinth / 12. Big S.A. / 13. Staircase Stories / 14. Fifty Bop / 15. Spooky

캐나다 브램턴 출신 래퍼 라즈 프라스코(Raz Fresco)는 Lupe Fiasco나 Blu 등 자아와 사회에 대한 통찰과 탐구를 양분으로 삼는 리릭시즘이로 말미암아 가지를 뻗어나갔다. 복잡하고 타이트한 라임 패턴과 안정적인 딜리버리 및 플로우로 하여금 정통파들이 먼저 반길 만한 그의 랩은 언제나 노련함을 보여준다. 이번에 그를 반긴 이는 베테랑 프로듀서 DJ 머그스(DJ Muggs)이다. 라즈는 자신의 스타일리쉬한 감각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데뷔작 <Pablo Frescobar>(2015)와 같은 대담한 느와르부터 <Magneto Was Right>(2020)와 같은 창의적인 '희귀 변종(X-Men)' 시리즈까지 구현할 수 있는 래퍼다. 머그스는 전통적인 블루스부터 드럼리스, 황금기의 퀸즈부터 그리셀다(더 근접하게는 뮤턴트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프로덕션으로 Raz의 감각을 동부로 확실하게 옮겨놓았다. 그간 Cypress Hill이나 Soul Assassins에서 해골사신이 저절로 떠오르는 음산한 하드코어 힙합 스타일로 유명한 평소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의아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파트너의 감각에 대한 높은 안목과 이해도로도 일가견이 있는 그 이기에 이번 선택은 라즈의 감각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라즈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충실히 라임을 짊어간다. 본인이 가장 잘해오던 방법대로 말이다. 본 작은 둘이 유려한 시너지로부터 일단 기분 좋게 한 표를 얻어간다.

by 감상주의



Try
Joeyy
2024.07.30

1. Anglerfish / 2. Noah Shebib (Kangaroo) / 3. TSA / 4. Overdose /
5. Thanks / 6. Hard / 7. My Name Is Earl / 8. 1 Last Kiss / 9. 2 Pac
(Me)

조이(Joeyy)의 캐릭터는 굉장히 독특하다. 패션, 마약, 종교, 비만, 탄산 음료 등등 수많은 주제로 (때때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지만) 랩을 하며, 단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의 첫 정규 앨범 <Try>는 이러한 장점을 가장 극대화해놓은 작품처럼 느껴진다. 굉장히 탄탄한 프로덕션과 중독적인 래핑이 짧은 러닝타임 내내 귀를 사로잡는다. "Anglerfish"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의 프로덕션을 보여주며, 최면을 당하는 느낌까지 들게 할 정도로 중독적인 "Noah Shebib (Kangaroo)", 자신을 2Pac에 비유하는 뻔뻔하지만 사랑스러운 "2 Pac (Me)" 등으로 조이는 1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존재감과 캐릭터를 수 차례 뇌리에 때려 박는다. <Try>는 명반이 아니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탁월한 작품이다. 조이는 자신이 "힙하지 않아 힙해진"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단순함이 그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Try>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애착을 가지기엔 앨범의 볼륨이 너무나도 짧다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동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환상적이고 완벽한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by 자카



Songs For Sinners and Saints
Killer Mike
2024.08.02

1. BUSSIN BRICKS INTRO / 2. NOBODY KNOWS / 3. HUMBLE ME /
4. HIGHER LEVEL / 5. EXIT 9 (SCENIC ROUTE) / 6. LORD PREPARE
ME / 7. SLUMMER 4 JUNKIES / 8. HAD TO GO GET IT / 9. '97 3-6
FREESTYLE / 10. STILL TALKIN' THAT SHIT

킬러 마이크(Killer Mike)가 <MICHAEL>으로 그래미 3관왕을 거머쥐고, 경비원과의 다툼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발매된 킬러 마이크의 새로운 앨범 <Songs For Sinners and Saints>는 그의 투어 밴드 Mighty Midnight Revival,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오랜 동료들과 힘을 합쳐 만들어진 작품이다. 킬러 마이크는 본작에서 트랩과 멤피스 랩, 또 전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가스펠 등 다양한 장르의 비트 위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과 서사, 또 그 위에서 지나쳐온 많은 사람들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 블루스풍의 트랙 "HUMBLE ME"에서 그는 그래미 시상식 저녁에 느꼈던 감정과 자신이 체포를 당했던 경험을 다니엘로 사자 굴속으로 내던져진 이야기에 비유하며 랩을 한다. 킬러 마이크의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과장되고 자아도취적인 면이 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체포를 당한 일이 과연 자신이 FBI의 표적이 되었다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킬러 마이크의 신앙과 믿음은 그의 랩과 음악에 큰 힘을 실어주는 듯하다. 힘을 조금 뺐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강력하고 대담하며, 랩을 신성한 예술처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2002년 OutKast의 노래 "Snappin' & Trappin'"에서 시작해 <R.A.P MUSIC>으로 아티스트로서의 증명을 끝마쳤고, El-P와 함께 Run The Jewels로 모두가 열광하는 굿판을 펼치고 있으며, <MICHAEL>과 본작 <Songs For Sinners and Saints>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한차례 되돌아보는 여정까지 마무리 지었다. 과연 킬러 마이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by 자카



shadowbox

MAVI

2024.08.09

1. 20,000 leagues / 2. open waters (Feat. Malaya) / 3. i did / 4. i'm so tired / 5. tether / 6. the sky is quiet / 7. latch / 8. grindstone / 9. drown the snake / 10. drunk prayer / 11. the giver / 12. too much to zelle / 13. testimony / 14. my own way

99년생의 젊은 래퍼, 마비(MAVI)는 여전히 그루미하다. 종교, 마약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동시에 구사하는 안정적인 텍스처, "drown the snake"와 같은 스킷(Skit) 역시 허투루 쓰지 않으며 앨범의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다('악마가 네 인생을 괴롭히게 할 수 없어'). 33분이라는 컴팩트한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14트랙을 꾹꾹 압축시킨 점은 인상적인 부분이다. 블랙아웃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다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을 때서야 비로소 신을 느끼는 "drunk prayer", 과도한 소비와 마약 등으로 문제를 걷어내기에 급급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백하는 "latch"와 같은 트랙들은 현재 마비의 형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가늠케 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shadowbox>는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 분투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잘 짜여진 탐구작이다. 즉, 세상을 구해내진 못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역할로는 성공이란 것. '예술은 세상을 구할 수 없어, 단지 세상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뿐' ("open waters" 中) 이런 삶에서 불완전함에 완전히 승복(承服)하는 것도, 무릎 꿇는 것도 아닌 — 그저 그런 겹총을 차분히 직시하고 쌓아나갈 뿐. 무엇보다 결정은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것이다. 악마들이 물어뜯는다고 느낀다면 몸을 움직여 털어버리던가, 악마들이 납득 가능하면 물어뜯기던가.

by 스룩산



Summertime Butch

Benny the Butcher

2024.08.09

1. One Verse Butch / 2. The Most (feat. Ray Moon) / 3. Sundress & Sandle Season (Interlude) / 4. Knightfall / 5. Summer '24 (Ed Lover Mix) (feat. Ed Lover) / 6. Kitchen Table (feat. Black Soprano Family & Harry Fraud) / 7. Peachtree (Interlude) / 8. The Blue Building (feat. Amber Simone) / 9. The Warehouse 3 (feat. Rick Hyde, ElCamino & Fuego Base) / 10. Higher (feat. Lindsay Niccs)

올해 1월 정규 4집 <Everybody Can't Go>로 약간 아쉬웠지만 여전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베니 더 부처(Benny the Butcher). 어찌 된 일인지 그가 여름을 맞아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새로운 앨범 <Summertime Butch>로 돌아왔다. 본작은 '여름날'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전의 전형적인 동부 힙합 스타일에서 벗어나 여름의 분위기를 담은 긍정적인 바이브를 가득 머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앨범에 특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그가 기존에 보여주었던 카리스마와 날 선 가사 등의 장점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가볍게 길거리를 거닐며 들을 만한 "Summer '24"와 "Higher"를 제외한 대부분의 트랙에서 베니의 퍼포먼스는 어색하기 짝이 없다. 앨범의 기대치를 확 낮추는 역할을 한 오프너 트랙 "One Verse Butch"의 억지스러운 추임새와 래핑, 빈약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트랙 "Knightfall"과 "Kitchen Table"은 앨범에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생각된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남긴 "Peachtree (Interlude)"는 이 작품에 과연 베니가 진정성을 담았나 의심하게 만드는 트랙이다. 종합적으로 <Summertime Butch>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이도 저도 아닌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오점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역시 쇠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제발!

by 자카



Doing It For Me

Larry June

2024.08.09

1. From Uncle Herm, Pt. 5 / 2. Magnum P.I. / 3. Morning Calculations / 4. A Little While / 5. Stinson Beach / 6. Real Talk, Pt. 2 / 7. Three Piece / 8. Where I'm Going / 9. Meet Me In Napa / 10. Breakfast In Gold Coast / 11. Imported Couches / 12. Cleaning My Spot (Interlude) / 13. Like A Mack / 14. Dreams / 15. Money Bag

2023년 The Alchemist와의 합작 <The Great Escape>로 잔잔하지만 분명한 논법으로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래리 준 (Larry June). 그는 종종 독특하면서도 건강한 메시지를 쓴에 불어 넣곤 한다. 이번 <Doing It For Me>에서도 이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 전작들에 비하면 신선함보다는 익숙함에 가깝지만,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여전히 건강하다. 인트로인 "Uncle Herm, Pt. 5"에서부터 래리 준은 하루 종일 집에서 SNS와 콜 오브 듀티와 같은 게임에 시간 낭비를 하는 이들을 지적하며, '올바른 비전을 토대로 본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몇몇 트랙은 앞서 언급했던 인트로의 대주제와 조금은 엉나가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꽤나 아쉬움이 느껴진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그의 퍼포먼스는 고밀도의 그루브를 살려내어 앨범을 아득히 채워나간다. 특히 "Breakfast in Gold Coast"에서는 보컬과 랩을 자유롭게 오가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Jake One, Cardo 등 유명 프로듀서진이 참여한 프로덕션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느긋한 사운드로 응집해 있지만, 도중 이에 반하는 여러 장르의 소스가 지루함을 상쇄시켜 준다. 비록 미풍이기에 만족스럽진 못해도 <Doing It For Me>는 분명 당신의 늦여름을 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by ryuzimoto



Sleeper Agent Tweaker Agent

SYSLVC

2024.08.09

1. Self Proclaimed Beater (Goon City) / 2. Johnny Too Much Cash / 3. Econ Teacher Tried Selling Me Opiates / 4. Guappenheimer / 5. Sleeper Agent Tweaker Agent / 6. Squirter Nation / 7. Spongebob Hat Nterlude / 8. What's Really Going on in ClayCo? / 9. Usher / 10. Biggie Reaching for His Food / 11. I Live in a Tweaker Ethnos-tate

클라우드 랩은 멤버들에게 본의 아니게 배턴을 넘겨주게 되며 플로우로서의 위치보단, 하나의 사운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장르의 탄생에 일부 기여한 Bones와 Yung Lean이 그랬고, 이후 이들의 영향을 받은 Drain Gang과 Haunted Mound가 그랬듯이, 클라우드 랩은 다양한 장르와 붙었다 떨어지며 '멍청한 랩'에서 예술적인 장르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FISHGANG의 멤버인 동시에 아직 17살에 불과한 프로듀서, syslvc은 앞선 과정들을 지나오며 등장한 여러 형태의 클라우드 랩을 하나의 작품에 아카이빙 했다. 본작은 11개의 트랙, 17분이 조금 넘는 러닝타임을 가졌다. 하지만 그 안엔 베이퍼웨이브를 만난 원초적인 클라우드 랩, 클라우드 랩 위에 위치하우스를 올린 Haunted Mound 특유의 'Butcher House' 사운드와 < COLD VISIONS >를 연상케 하는 레이지 사운드까지, 초기부터 가장 최신의 사운드마저도 반영돼 있어 '클라우드 랩 박물관'이라 부르기엔 무리가 없었다. 단순히 사운드를 재현하는 선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다. 게스트로 등장하는 FISHGANG의 멤버들은 레퍼런스 속 인물들에 몰입해 흥미점을 더했으며 syslvc의 샘플링은 다소 심심하게 훌러갈 수도 있는 클라우드 랩의 단점을 보완해 냈다. 많은 Drain Gang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FISHGANG은 씬 전체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뿌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by SongChico



Bird's Eye

Ravyn Lenae

2024.08.09

1. Genius / 2. Bad Idea / 3. One Wish (feat. Childish Gambino) / 4. Dream Girl (with Ty Dolla \$ign) / 5. Candy / 6. Love Is Blind / 7. Love Me Not / 8. From Scratch / 9. 1 of 1 / 10. Pilot / 11. Days

환상성을 더하는 신비로운 팔세토와 현실성을 더하는 진솔한 표현, 상반된 두 포인트가 어우러져 관계와 감정에 대하여 입체감과 깊이를 더하는 요술. 이 매력만으로 라빈 르네(Ravyn Lenae) 가 컨템포러리 알앤비가 가장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주장은 자명한 사실이 되고 만다. 분명 90년대 네오-소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FKA Twigs나 Sudan Archives처럼 알앤비에 관한 그녀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다. 재작년의 <HYPNOS>는 자신의 기반과 시선을 동시에 제시해 낸 대표작이 되었다. <HYPNOS>를 포함해 Steve Lacy와 함께해 온 일련의 작업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향으로부터 중점을 찾는 과정에 가까운 것들이었다면, DJ Dahi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은 <Bird's Eye>는 확실히 보다 후자로 당겼다. 심지어 얼터너티브와 인디 팝 간의 경계조차도 모호해진 인상이다. 그러나 본작에서는 흥미롭게도 이러한 시도가 꽤 괜찮게 들린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그녀의 매력 덕분이다. 그녀는 여전히 신비롭되 더 다채로워진 사운드와 감성으로 관계의 이모저모를 건드린다. 그럼에도 두 가지만큼은 공통적으로 포착된다. 목소리의 상긋함, 그리고 불안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가 그것이다. 팝의 간드러진 친밀함에, 그럼에도 소울 본연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진중한 고백과 성찰이 담겨있다.

by 감상주의



WOOF

Ameer Vann

2024.08.09

1. LISTEN / 2. IN THE BUILDING / 3. YEAH / 4. GOOD BOY / 5. MEDICINE / 6. GEMINI / 7. MOVING SLOW / 8. SHAWTY / 9. CHOOSING / 10. GENESIS / 11. OUTRO

BROCKHAMPTON의 핵심 멤버로서 전성기를 누렸으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에서 퇴출당하며 본인의 가장 영광스런 순간으로부터 평생 도망쳐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아미어 밴(Ameer Vann). 나락으로 내쫓긴 그가 최근 정규 1집 <WOOF>를 발매하며 오랜만에 별으로 발을 내딛었다. 수록곡 "GOOD BOY"에 등장 하듯, 앨범은 그 주인의 본능을 따라 저지르고, 이를 뉘우치기를 반복하는 '착한 개xx'로 묘사한다. 길거리 출신이란 자만심과 그 삶을 회의하는 모습이 교차하는 이 작품은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함과 동시 탈피하려는 의지를 담아낸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과로 직결 되지는 않는 법. <WOOF>는 수작으로 불리기에는 완성도가 미흡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밴의 '일관성'이다. 그의 낯은 톤과 정확한 딕션은 트랩 밴드 "IN THE BUILDING"이나 느린 템포의 "MEDICINE", "GEMINI"에서는 강력한 임팩트를 주지만, 장르적 범위성이 제한적이다. "YEAH"와 "CHOOSING"을 통해 각각 레이지와 싱잉에 도전했음에도, 어색한 목소리와 이를 감추려 남용하는 피치 조정은 장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트렌드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의 발버둥으로만 보일 뿐이다. 결국 '잘하는 것만 잘한다'라는 오명에 스스로 뼈기를 박아버린 아미어 밴. 욕심과 달리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엔 같길이 먼 듯 하다.

by denim

Full Review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

Y2K!

I LAY DOWN
MY LIFE
FOR YOU

Sophcore **VULTURES 2**

Ultra 85

**F-1
TRILLION**

QUANTUM
BABY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

Editor 감상주의

Magnetic Fields의 99년 트위 팝 컴필레이션 <69 Love Songs>의 아성에 버금가는 쇄도이다. 자그마치 50 트랙에 달하는, 제목 그대로 <궁극의 러브송 컬렉션>의 결정판이라고 봐도 좋을 테다. 프랭크 도레이(Frank Dorrey)란 예명의 비주얼 아티스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도리스(DORIS)의 컴필레이션은 그간 인스타그램 전시물들 의 기출변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단순히 변용적인 연장선상이라고 보기엔 다소 난감하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예술 활동 중에 규모가 가장 방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앨범의 러닝타임은 48분 가량. 평균적인 LP 정도의 길이에 불과하다. 미술에 대입하자면 캔버스 자체는 의외로 중간 호수의 풍경화 사이즈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30초 ~ 1분 30초 사이를 오가는 각 트랙은 일종의 콜라주적 요소에 한하여 보는 것이 적합하겠다. 따라서 <69>보다는 편린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데, 단어가 주는 이미지처럼 작품의 감성은 매우 노스텔직하며 힙나고직(Hypnagogic)하다. 사랑스러운 버전의 <Some Rap Songs>을 듣는 것만 같다. 인생을 통틀어 어떤 의미로든 사랑과 조금이나마 연관이 있는 모든 순간들을 빠짐없이 긁어모아 만들어낸, Earl이 아닌 도리스식의 사운드 콜라주라고 해야 할까.

도리스의 청각적 실험은 그가 뉴저지에서 갓 명성을 얻기 시작

하던 때부터, 고로 꽤 일찍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 바야흐로 2021년 싱글 "Usher"가 공개된, 그리고 그것이 유명 스케이터 Genesis Evans가 참여한 비디오에 의해 바이럴된 날을 기점으로 삼아볼까 (사운드클라우드에서의 비공개 활동까지 고려하면 더 일찍이지만). 비디오에 사용된 대부분의 음원이 스케이트를 도전적이고 짜릿한 레저 스포츠로 조명한 반면, 도리스의 1분짜리 사이키델릭 소울은 그 순간을 일상 속의 잊고 싶지 않은, 코끝이 찡해지는 즐거움으로 바꿔 버렸다.

이후 그는 댄스 타입의 <Side Nigga>와 얼터너티브 타입의 <The Saver EP>를 통해 아련함과 즐거움 사이를 교차하며 실험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그가 진행해 온 일련의 콜라주 실험은 컴필레이션에 이르러 사랑을 찾아 떠나는 장거리 여행으로 완성된다. 물론 이는 과거로의 여행이며 이따금 가이드가 추천하는 환각제를 들이켠 채로의 여행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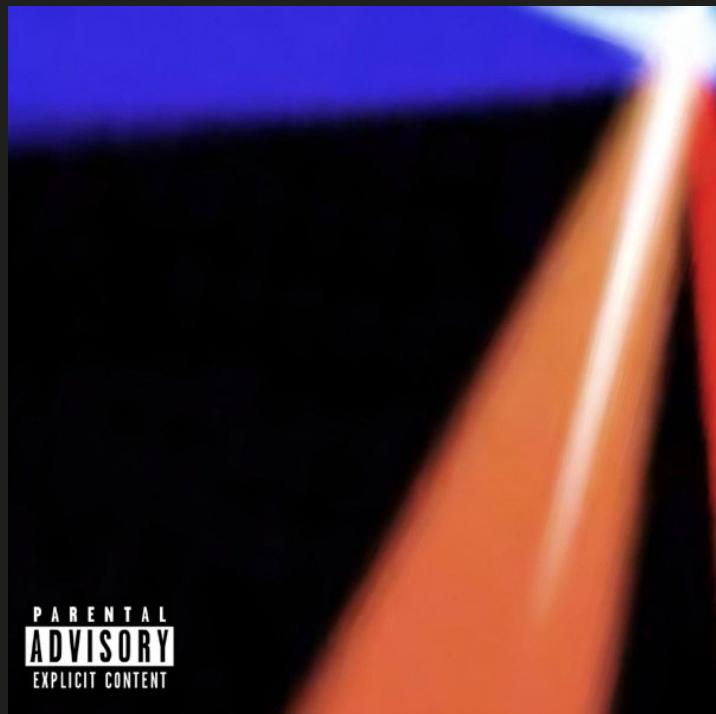
우선 그 중 명징한 빛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샘플 운용이다. 단란한 가정집에 퍼지는 낡은 오르골 소리에 흥에 겨운 아이가 재잘거리는 듯한 첫 곡 "YOUNG HATIAN NIGGA"부터 그의 샘플링은 짧게 스플라이스 처리된 기억의 편린을 돌보이게 하기 위함에 있음을 암시한다. 마치 혼자 외롭게 우주선을 탄 채 무의식이란 광활한 우주 안에 떠돌아 다니다가, 저 멀리에서 겨우 잡히는 고향의 익숙한 가락과 음성, 그리고 기타 잡음들을 듣고 있는 것만 같다. 간혹 괴이한 백마스킹으로 도배된 "if im not back in 5 min"이나 도중에 노랫말이 음소거된 "Hesi"처럼 신호가 제멋대로 잡히는 해프닝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스텔지어는 황당하게도 도리스의 괴팍한 음성 변조 랩을 통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훨씬 얌전하고 사랑스러워진 <Whole Lotta Red>의 Carti를 보는 듯한 그의 멈블은 들쭉날쭉한 오토투톤에 의해 곡마다의 자아가 전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역시 SW와의 인터뷰에서 '오토투톤은 자신과 예술, 프로덕션과 자아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더 큰 자유를 제공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어쩌면 그의 시각 예술에서 피사체의 형태와 인물의 표정이 왜곡되고 과장된 채로 등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까. 이는 자유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공간의 초현실성도 제공해 주는 모양이다. 더는 닮을 수 없는 실재를 향해 판타지로서의 현상을 대신 선물해 주는 셈이다.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에선 오로지 아기자기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오는 특별함만을 포착하여 수집했다. 거기엔 어떠



한 향락과 과시도, 평크의 광폭함도, 레이지의 요란함도, 풍크의 스산함도, 드릴의 폭력성도, 디트로이트 트랩의 퇴폐성도 없다. 차라리 Dean Blunt와 80년대의 트위 팝을 끌어들인 새로운 영역으로의 개척이라고 부르고 싶다. 플런더포닉스(plundrphonics)보다도 해체적이고, 샘플델리아(sampledelia)보다도 환상적이며 베드룸 팝보다도 아늑하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장르들을 아우른 것보다도 독특하면서 친밀하다. 비주얼 아트로나 팝 뮤직으로나 편안함과 임팩트를 모두 선사하는 그의 작업들은 우리를 사랑이 고픈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다.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

DORIS

2024.07.06

1. YOUNG HATIAN NIGGA / 2. makeup / 3. Baby reign / 4. Hennessy&CandyCane / 5. if im not back in 5 min, jus wait longer / 6. STRAIGHT FACE / 7. close friends / 8. +2s / 9. BREAKINGSKIN / 10. JOYOUS WHIMSICAL / 11. Overzealous / 12. EARLYGOODBYE\$ / 13. BURNING / 14. Hesi / 15. blowin smoke type beat / 16. reservations / 17. 2000shots / 18. winning numbers / 19. in the pits / 20. D..T.Y / 21. kinda sorta / 22. Fav part / 23. rock out / 24. OKAY / 25. turn me up gang / 26. 2 speeds / 27. bricks / 28. ANMWE / 29. why it matter? / 30. strangelove / 31. ur gone hate mee / 32. spirits and funny men / 33. Two Whiskey Sours / 34. smoke clouds so unreal / 35. mybodmysoul / 36. when you wanna put it in a song and it goes like / 37. Kdot rap / 38. KEEP DIG!!!!!! / 39. NotAnyonesHouse / 40. wedding cake / 41. nike tech / 42. idk / 43. Gs / 44. half n half Arizona / 45. blue dream / 46. kissing / 47. 205 / 48. Jerk / 49. Party 2 / 50. motivator



Y2K!

Editor 자카

아이스 스파이스(Ice Spice)가 리스너들의 주목을 처음 받게 되었던 시기는 2021년, Drill 장르의 패권이 브루클린에서 브롱스로 넘어가던 때였다. 브롱스 출신의 그녀는 프로듀서 RIOT과 손을 잡고 당시 유행한 Sample Drill 음악 스타일을 착안하여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뱅어 트랙들을 만들어냈다. Zedd의 "Clarity"를 샘플링한 "No Clarity"와 Martin Garrix의 "In The Name Of Love"를 가져온 "Name of Love". 단 두 곡만으로 그녀는 Sample Drill 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로 거듭났다.

그러나 2022년 8월, 그녀는 전혀 다른 곳을 항로를 틀었다. EDM 클래식들을 샘플링한 Sample Drill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Drill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후 발매된 첫 싱글 "Munch (Feelin' U)"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TikTok에서 트렌드가 되고 빌보드 싱글 차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발매한 "In Ha Mood"와 같은 트랙들 역시 계속해서 히트를 치며 음악 업계 최고의 신예로 떠올랐다. Pink Pantheress와 Nicki Minaj, 심지어는 Taylor Swift까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유명 기업들의 러브콜이 계속되었다. 영화 바비의 사운드트랙에 참여했으며, 그래미 시상식에 4번이나 노미네이트되었다.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룩해왔고 Savage한 이미지와 여린 10대 소녀의 마음을 융합한 친근한 캐릭터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데뷔 EP이자 2023년 최고의 화제작 <Like..?>에서 아이스 스파이스가 순진하지만 치명적인 주인공의 역할을 선보였다면, 첫 정규 앨범 <Y2K!>는 완전히 거친 그녀의 모습을 위주로 보여준다. "Boy's a liar pt. 2"의 외줄타기 하는듯한 로맨틱한 여주인공이 되지 않았고, "In Ha Mood"처럼 부드러운 그루브로 흘러가는 트랙 역시 선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래핑과 보컬을 23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늘려 넣었다. 헤이터나 팬을 만족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자신의 음악과 Drill에만 관심이 있어 보일 뿐이다.

아이스 스파이스는 비교적 제한된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지만, 그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Nicki Minaj의 영향을 받은 티가 짙은 "Phat Butt"에서 환락적이고 불경스럽게 앨범의 포문을 연다. 이후 리스너들의 목을 죄어오는 "Papa", 처음으로 레이지 스타일의 비트를 차용한 "Plenty Sun", 작은 악마가 되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Did It First",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사정 없이 기세로 몰아붙이는 "Gimme A Light"에 이르기까지 — 아이스 스파이스는 리스너들의 목덜미를 잡아채 사정없이 자신만의 Drill 세계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Y2K!>에는 여전히 눈에 띄는 미숙함과 단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바로 아이스 스파이스의 가사에 있다. "난 단순한 걸 좋아해", 이런 스탠스에 맞게 그녀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쭉 단순하고 이해가 쉬운 가사들을 써왔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서 본격적인 새 지평을 열게 될 야망 넘치는 작품 <Y2K!>에서 쓰이는 가사는 너무 진부하고 매력이 덜 느껴진다. 싱글 발매 당시부터 큰 논란과 화제를 불러 모았던 "Think U The Shit (Fart)"의 "Think you the shit, bitch, you not even the fart"라는 편치라인은 유치원생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야 있겠지만, 결국엔 <Y2K!>라는 작품의 몰입도를 해치는 역할을 한다.

앨범에 참여한 게스트들은 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Oh Shhh..."에 참여한 Travis Scott은 곡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다 느껴질 정도로 지나치게 저돌적인 벌스를 보여줘 곡의 비트나 분위기와 전혀 맞물리지 못한다. 다소 나긋나긋하다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어색하고 인상적이지 못하다. 4번 트랙 "Bitch I'm Packin'"엔 Gunna가 힘을 보탰는데, 굳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One of Wun>과 <DS4EVER>에서 보여준 래핑과 동일한, 그저 '거너가 거너했다' 식의 벌스를 확인할 수 있다. 앨범의 최고 인기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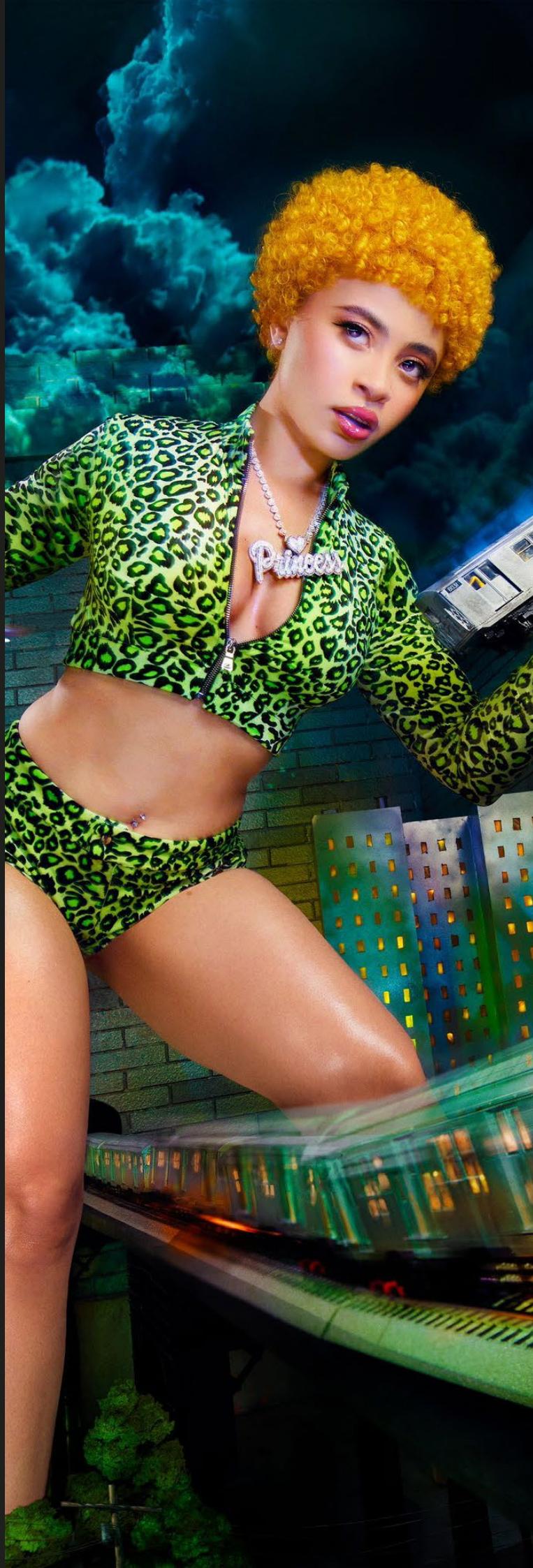
"Did It First"의 Central Cee는 아이스 스파이스에 비해 조금은 약하다고도 느껴지지만, 앞서 언급한 두 아티스트보단 곡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Taylor의 "Karma" 리믹스 버전에 참여하고, PinkPantheress와 함께 빌보드 3위에 오르며, 기업들과 대중들의 무수한 러브콜을 받는 아이스 스파이스는 첫 정규 앨범에서 음악적으로 타협을 하고 대중의 눈치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틀에 박히려 하지 않았고 무수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리를 담아낸 작품을 만들었다. <Y2k!>는 빠르고, 다채로우며, 몹시 강렬하다. 그녀에게 두려움이란 없으며, 이를 막을 이 또한 존재치 않는다



Y2K!
Ice Spice
2024.07.26

1. Phat Butt / 2. Oh Shhh... (ft. Travis Scott) / 3. Popa / 4. Bitch I'm Packin' (ft. Gunna) / 5. Plenty Sun / 6. Did It First (ft. Central Cee) / 7. BB Belt / 8. Think U The Shit (Fart) / 9. Gimme A Light / 10. TTYL



I LAY DOWN MY LIFE FOR YOU

Editor 온암

'If I was an NBA player, I'd be Dillon Brooks, but worse…'
—"i scream this in the mirror before I interact with anyone" 中

"신선함이 정체성인 아티스트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데본 헨드릭스(Devon Hendryx) 에라부터 <LPI>와 <SCARING THE HOES>로 익스페리멘탈 힙합 씬의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제이펍마피아(JPEGMAFIA, 이하 페기 Peggy)의 사전에 매너리즘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음악적 우상인 Kanye West의 변화 정도는 우아하고 격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급진적인 탕아였던 그는 매 프로젝트마다 동시대의 그 누구와도 궤를 달리하는 혁신성으로 힙합 역사상 가장 아방가르드한 디스코그래피를 구축했다. 그의 사적인 인물상 역시 그의 음악 자체만큼이나 다면적이 기 그지 없다. Death Grips의 팬덤보다 더 짚고 문란한 인터넷 너드들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축적한 페기는 트위터의 키보드 워리어가 되기도, 퀴어 컬쳐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기도, 백인 소년들의 우상이자 몰락한 Kanye의 열혈한 지지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그는 분명 쟁쟁한 대중음악의 거물들과 유사한 빈도로, 수상하리만치 잦게 언급되는 무명의 은둔 고수에 가까웠다. '안주를 거부하고 언제나 괴기하게 비틀려 있는 변화무쌍'이야말로 정신병력을 동반한 이 전직 군인을 상징하는 속성인 것이다.



'The first one was good with the beats, the second one put
me up in the deep, the third one was sick, no disease, the
fourth, I had to rush it to complete'
- "either on or off the drugs" 中

그의 커리어를 거시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는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변화만을 추구해왔다. <THE GHOST~POP TAPE>의 PBR&B와 클라우드 랩에서 <Black Ken Carson>으로의 진화는 한 세대 단위에서 발생하는 진화를 방불케 할 충격이었고, <Veteran>이 실험 음악으로서 추구한 완성도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충격이었다. <All My Heroes Are Cornballs>는 폐기가 데본 헨드릭스를 작금의 명의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오프라인 버전의 <LP!>는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The Blueprint>였다. 그리고 <SCARING THE HOES>는 방점이었다. <LP!>의 태도와 기조를 일부 수용해 그 연장선상에서 음반의 전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J Dilla 레벨에 달한 폐기의 SP-404SX 테크닉과 Danny Brown과의 시너지, 그리고 자유분방하면서 놀랍게도 대중적으로 완성된 실재적 광란은 거성들의 콜라보 음반을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역사 정중앙에 남겼다. 리릭시스트로서의 반골 기질을 프로듀서로서 그토록 광범위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폐기는 이미 과거의 거장들과 같이 자신만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다.

씬에서 가장 지대한 인기를 구가하는 인디 래퍼로 등극한 것은 물론, Kanye West를 만나 <VULTURES> 시리즈의 Rick Rubin이 된 경험은 결코 메인스트림으로 승천할 수 없을 만 같던 제이펙마 피아에게 성공의 단맛을 시음하게 했다. <I LAY DOWN MY LIFE FOR YOU>는 내외적으로 폐기의 통계적 고점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폐기는 난생 처음으로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노선을 택하고 만다. 폐기의 정규 5집은 전작의 성공 전략을 노골적으로 반복하며 위 테마를 확장시킨다. "SCARING THE HOES"의 헤비 메탈 톤과 "Garbage Pale Kids"의 기타 솔로는 파격적인 변주로 호평을 많은 전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시퀀스였다. 때문에 본작이 '익스페리멘탈'의 측면으로서 랩 락을 고른 선택이 결코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인트로 "i scream this in the mirror before I interact with anyone"은 어느 폐기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김과 동시에, 본작의 테마를 암시하는 수정 구슬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순히 도파민 친화적임을 능가해 본능적인 공포심 까지 자극하는 곡의 강렬한 기타 리프는 폐기가 청각적 쾌감을 유



도하는 데에는 도가 튼 프로듀서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후 "SIN MIEDO", "don't rely on other man", "vulgar display of power" 등 인트로 "는 여느 폐기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서두를 장식하며 향후 앨범의 장르적 전개에 대한 수정 구슬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순히 호전성에 지나지 않고 본능적인 단위의 공포심까지도 자극하는 곡의 기타 리프는 폐기가 청각적 쾌감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정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공고히 한다. 이후 연달은 "SIN MIEDO", "don't rely on the other man", "vulgar display of power", "JIHAD JOE" 등의 트랙리스트에서 폐기는 하드 락과 메탈, 랩 락의 레퍼런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도파민과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직설적인 사운드와 퍼포머로서의 기조 탓에 폐기의 유머는 더 통렬하게 접근하고, 앨범에 대한 리스너들의 이해 또한 보다 용이해졌다. <I LAY DOWN MY LIFE FOR YOU>가 제이펙마피아의 디스코그래피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높은 음반이 된 것만으로, '익스페리멘탈'이라는 매니아 장르에서 락이라는 거인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이정표로서 기능했는지 제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락에 대한 적극적인 차용은 도리어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SIN MIEDO"와 "don't rely on the other man"은 락의 장르적 요소를 적절히 사용해 앨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들을 창조했으나, "vulgar display of power"와 "JIHAD JOE"는 그 가공할 에너지에 비해 폐기 음악의 전유물이었던 신선함을 전달시키지 못한다. 두 케이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본질을 힙합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좀 더 진전시켜 밝히자면, 폐기의 창의적 시도는 그것이 오직 힙합에서 이루어졌기에 가치가 있었다. <I LAY DOWN MY LIFE FOR YOU>의 락 레퍼런스는 Black Sabbath의 위대함보다 인스타그램의 서버에 부양하는 백인 아마추어 기타리스트들의 것에 가깝다. 완성도나 쾌감에서 큰 결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음악사에서 어떠한 혁신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평범한. 그럼에도 그의 음악이 지금껏 압도적인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이유는 폐기가 그 일말의 아마추어리즘까지도 기생의 음악인 힙합으로서 포식해 지금껏 접하지 못했던 형태의 혼합물로 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랩 락에 대한 전격적인 도전장을 제출한 행위는 이미 힙합의 전위성을 상징하고 있었던 그에게 오히려 퇴보에 가깝다. 앨범을 대표하는 싱글인 "SIN MIEDO"가 익스페리멘탈 힙합, 하드 락, <BRAT> 타입의 댄스 뮤직 간 육중한 비트 드랍을 삽입하며 적절한 접선을 선보인 것과 음반 전반이 정반대의 기조를 보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역설이다. 그는 결코 Beastie Boys와 Rage Against The Machine의 시대에 살지 않고, 랩 락이 전위적인 서브 장르로 평가받기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페기는 샘플링 기반의 프로듀서로서 지금까지 획기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해왔다. 그는 디제잉 장치와 MPC를 뛴 과거의 마에스트로들과 달리 컴퓨터로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총괄하는 수공업자였고, 동시에 새로운 익스페리멘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인터넷 인셀들의 우상이다.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타 프로듀서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샘플 가공 기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 다른 프로듀서들이었다면 반주만을 샘플링했을 법한, 혹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법한 샘플들을 페기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시켰는지 목도 하라. 단적으로 결론만 제시하자면, 그는 여전히 샘플을 주로 사용할 때 가장 빛나는 아티스트라는 것이다. 그 누가 그가 포트나이트의 짧은 감정 표현 음성 클립을 고중량의 힙합 비트로 편집할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또 "JPEGULTRA!"에서 Akira Ishikawa의 "Get Up!" 샘플과 Kenny Beats의 드럼을 혼합해 엽기적인 익스페리멘탈 힙합 비트를 제작한 방식만 보아도 너무나 극명하다. 무엇보다 "Exmilitary"라는 이름의 장엄한 과거 경력에 주목하라. Wu-Tang의 저명한 "After Laughter (Comes Tear)" 샘플로 시작해 스토티텔링의 포석을 던진 곡은 극적인 신스 솔로를 지나 메탈 기타와 Porter의 "La China" 샘플을 더하고, 이내 다시 폭발적인 신스 솔로로 회귀해 수미상관의 구조로부터 비장한 드라마를 직조한다. 페기의 오리지널 작법으로 주조된 5분 간의 힙합 오페라는 그야말로 텐 테이블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의 표상이자 페기가 샘플러로서 감정적인 순간까지도 연출할 수 있다는 가장 강대한 방증이다.

페기가 샘플을 가공하는 색다른 예시는 보컬 사용에서 나타난다. 최근 Kanye West나 Metro Boomin 등 메인스트림 힙합 아티스트들이 절찬리에 사용한 보컬 추출은 <I LAY DOWN MY LIFE FOR YOU>의 페기에 이르러 더욱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Jade의 "Don't Walk Away" 중 보컬만을 샘플링한 "I'll Be Right There"은 제이펙마피아의 독자적인 프로듀싱과 편곡을 거쳐 원곡과 전혀 다른 감상을 자아낸다. 메인스트림에 대한 동경과 갈망을 상징하는 Future의 사용 또한 흥미롭다. "New Black History"는 Future의 "Covered N Money" 중 그의 보컬을 추출해 180도 다른 편곡을 거친다. 그 중 "either on or off the drugs"는 화룡점정이다. Future의 "Turn on the Lights" 가사를 AI에게 인식시켜 70년대 소울 곡으로 재해석한 판본을 샘플링한 비트는 유사한 케이스의 "BBL DRIZZY BPM 150.mp3"와 비교해도 훨씬 더 노련하다. 원곡에서 느껴졌던 AI 특유의 위화감을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무결한 샘플 커팅은 '다 큰 성인 남성들을 감정적으로 만듦(Makin' grown men emotional)'과 동시에 힙합 음악 속 AI 활용의 역사에 영구히 기록될 것이다.



반면 최근 디스전에서 Future와 대척점에 있던 Drake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은 리릭시스트로서의 면모에 존재한다. 첫 곡의 첫 벌스에서부터 'Deebo'와 'Free throw'로 라이밍하며 Kendrick Lamar의 악명 높은 디스곡 "Not Like Us"를 오마주하는 한편, "it's dark and hell is hot"과 "New Black History"에서 각각 드레이크를 소아성애자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며 페기는 빠르게 작금의 힙합 트렌드를 추적한다. 특히 "it's dark and hell is hot"은 과거 Drake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故 DMX의 정규 1집과 동명으로, 그 암시적 디스는 브라질 풍크를 샘플링한 거침없는 비트만큼이나 위력적이다. 물론 2016년 "Drake Era"부터 페기는 Drake와의 일방적인 싸움을 계속 해왔으나, 현재의 그는 과거와 달리 디스 라인이 유의미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체급이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파급력이 다르다. 적어도 그는 바위 앞의 바실리스크 알 정도는 되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느껴지는 유명인 언급 라인, 섹스 코미디, 독보적인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 Freddie Gibbs 디스, 공군 시절의 트라우마까지 제이펙마피아는 역시나 매니아들에게 익숙한 언더그라운드 코미디언을 자처한다.

그러나 "either on or off the drugs"를 기점으로 앨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으로 접어든다. "loop it and leave it", "Don't Put Anything On the Bible", "I recovered from this"까지 이르는 후반부 시퀀스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성스러운 톤의 연출로 종교적 모티프와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다. 마치 데본 헨드릭스를 재소환한 것처럼, 페기는 작금의 그라기엔 다소 생소한 샘플과 음성 원소들을 다루며 의식적으로 그의 내면을 다룬다. 페기 본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워낙 넓은 탓에 그 완성도에 큰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앨범의 구성에 있다. 유사한 곡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유기성은 강화되었으나, 자극적인 사운드의 곡들을 전반부와 중반부에 배치하고 감성적인 곡들을 후반부에 몰아넣다보니 이미 끌어올려진 앨범의 긴장감을 후반부가 따라가질 못하는 오류가 생긴 것이다. 페기의 개인적인 서사에서는 후반부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음반의 균형을 설정하는 데 실패해 발생한 문제다. 각 곡마다 핵심적인 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샘플링과 믹싱의 포화도로 유기성과 전체적인 균형을 단번에 달성한 <LPI>와는 대조적인 결과다.

워낙에 걸출했던 전작들의 존재 탓에 <I LAY DOWN MY LIFE FOR YOU>는 페기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일종의 '정체'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익스페리멘탈 힙합에서 독보적으로 독특하면서도 대중적인 그의 색채는 여전히 음반 안에 살아숨쉰다. "New Black History"의 Vince가 지닌 탄력성과 "JPEGULTRA!"의 Denzel Curry



가 선보인 광폭한 질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페기의 래핑 또한 충분한 랩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한다. 그는 결코 익스페리멘탈의 혼돈 속 이정표 역할에 지나지 않는 혼한 래퍼가 아니다. 그리고 본작 또한 제이펙마피아의 커리어에 있어 최저점을 차지하는 작품이라고 정의되지 않는다. "SIN MIEDO"의 드랍, "New Black History"의 Future와 Vince Staples, "don't rely on the other man"의 장엄한 편곡, "Exmilitary"의 전율부터 "JPEGULTRA!"가 제시한 합작 앨범의 가능성, "either on or off the drugs"가 포문을 연 새로운 스타일까지 페기는 여전히 음악 너드들을 극도로 흥분시킬 줄 아는 아티스트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02위로 진입한 기록과 전작에 버금가는 인터넷의 호응이 증명하듯, 제이펙마피아는 그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새로운 아이콘으로 추대받고 있다. 그저 그 사실을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인물이 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I LAY DOWN MY LIFE FOR YOU>는 단지 서투른 거인의 첫 발걸음일 뿐이다.



I LAY DOWN MY LIFE FOR YOU

JPEGMAFIA

2024.08.01

1. i scream this in the mirror before i interact with anyone / 2. SIN MIEDO
- / 3. I'll Be Right There / 4. it's dark and hell is hot / 5. New Black History (Ft. Vince Staples) / 6. don't rely on other men (album version) (Ft. Freaky) / 7. vulgar display of power / 8. Exmilitary / 9. JIHAD JOE / 10. JPEG-ULTRA! (Ft. Denzel Curry) / 11. either on or off the drugs / 12. loop it and leave it / 13. Don't Put Anything On the Bible (Ft. Buzzy Lee) / 14. i recovered from this



Sophcore

Editor Indie Alse

필자는 이 앨범의 장단에 관해 치밀하고 분석적인 어구들을 늘어놓을 생각이 없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다면 그냥 피치포크에 가면 그만이다. 혹은 한국에서 거의 외연당하다시피 하는 이 아티스트의 리뷰 따위는 건너뛰고 다른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라. 간단히 말해 필자에게 '모지스 섬니(Moses Sumney)'란 복종과 순수한 환희이지 분석과 비평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필자에겐 그런 이름들이 있다. 이를테면 Frank Ocean과 Sufjan Stevens, 물론 Thom Yorke와 James Blake, 이따금씩 Weyes Blood... 섬니도 그 대열의 일원이다. 어쩌면 그것은 이들의 인스트루멘탈 하나하나를 들어낼 때 공개되는 그 아름다움의 — 때때로 너무나도 단순한 — 비결과, 다시는 처음의 감흥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장단을 운위할 때 그 척도와 기준과, 평가요소와,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늘어놓으며 거기에 생각을 고정시켜야 하는 일은 필자에게 너무 끔찍한 상실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모지스 섬니나 <Sophcore>에 관한 분석과 이해라기보다는 그저 그의 음악에 대한 아이같은 환호에 가깝다. 그 전제가 붙지 않는다면 이 글은 시작될 수조차 없다.

섬니가 그 놀라운 능력에 비해 국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의 장벽만으로 그의 음악적 능력이 가려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



한 이야기다. 실은 그 말 앞에 수식 하나가 생략되어있다. 그의 가사들은 그 로맨틱한 무드나 원시주의적 형상에 묻어 퍽 자연스러운 듯 보여도 사실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혹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은유적이다. 그러나 섬니는 그것들을 철저히 음악 속에 숨기거나 거의 악기처럼 사용해왔다. 그래서 청자의 역할은 거의 절규나 교태에 가까운, 저 원시적 백악질의 팔세토 사이에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벌이는 끝없는 암중모색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다. 문제는 그 늪에 기꺼이 빠져드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두들 그 보단 그 독특한 사운드를 음미하며 늪의 표면을 응시하는 편이 낫거나 혹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섬니의 경우 그 음악의 진수가 언제나 늪의 깊은 곳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늘 가벼운 청취자들과의 괴리가 생긴다. 그 진수는 바로 섹스다. 섬니는 그 자신의 커리어 내내 섹스와 사랑에 관한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스스로의 자아정체성과 성정체성에 관해 프로이트적 성찰을 일삼는다. 그의 앨범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 순전히 음악만큼 '그가 어떤 섹스에 집착하는가'의 변화 단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광막한 태고 속 원초적 섹스(의 <Lamentation>)에서 사랑을 거세한 무로맨틱 원류(의 <Aromanticism>)로 흘러왔으며, 거기에서 다시 마조히즘과 종교론적 자문(의 <græ>)으로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인 <Sophcore>는 이전의 종교적 분위기와 원시성, 마초성마저 모두 내버린 채 의뭉스럽게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아무런 예고나 대단한 홍보도 없이 무작정 유튜브에 올라와버린 이 앨범을 듣고 나서 필자는 그냥 이렇게 독백할 수 밖에 없었다. '모지스, 너 정말 섹시한 사람이구나?'

말하자면 이 앨범 <Sophcore>는 세계와 벌이는 또 하나의 섹스처럼 들린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던 어떤 한계 하나를 그냥 초월해버렸다. 그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무대로 넘어왔고, 본인을 속박하던 철학적 사유의 원시 생태계에서 벗어나 마침내 선글라스와 댄디한 슈트를 입는 곳을 바라본다. 세속적 사유, 개인으로서의 추억, 말하자면 애로티시즘에 관한 현대적 회고. 여기서 방점은 현대에 있다. 어쨌거나 이제 고요하고 적막한 숲 속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말을 쓰다듬는 섬니는 사라졌으며, 특유의 거대한 골격으로 활달히 춤을 추는 '새 섬니'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Vintage"의 뮤직 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상해서 몇 번이고 돌려봐야만 했다. 아마 <Aromanticism>이 나왔을 때, "Don't Bother Calling"이나 "Plastic"이 이런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필자는 섬니의 음악을 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섬니는 "Vintage"처럼 미니멀하고 최면적인 곡에 기어이 자신의 세속적 춤, 저 트랩 전당을 향한 교태와도 같은 몸짓을 삽입한다. 그것



은 선택의 문제이다. 암흑 속에서— 혹은 저화질의 캠코더 내부에서 블루지한 노래를 부르거나, 21세기라는 대지의 네온사인을 받으며 20세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억하거나. <Sophcore>의 음악들은 그저 후자를 택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을 독창성을 잃어버렸다거나 주류 세계로의 도피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설명이다. 차라리 필자는 이 앨범이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들을 선별한 다음, 그걸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진다. 혹은 밀레니엄 이전의 공기를 빈티지하고 솔풀한 분위기로 매끈하게 재현한 것 같다. 마치 음악의 세계를 벗어나 2000년대를 맞은 허우샤오시엔의 렌즈를 들여다보는 기분이다.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 이 앨범에 담긴 6곡은 어느 하나 빼뜨릴 것 없이 기막힌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Gold Coast"나 "Hey Girl"은 그냥 미치도록 아름답다고 밖에 할 수 없고, "Vintage"는 필자로 하여금 이전 커리어의 스타일리시한 환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Whippedashed"는 모지스가 가진 미니멀리즘의 미학에서 가장 멀리 뻗어나간 곡이었다. 그 간드러지는 팔세토와 듬뿍 젖은 듯한 피아노, 20세기로의 최면. 이 앨범은 모지스의 Ep 앨범이라기보단 8, 90년대의 캐케묵은 R&B와 블루스를 꺼내 실험을 하는 한 괴짜의 청사진 같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기괴한 음악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을 잔뜩 머금은 키보드가 아르페지오를 그리다가 갑자기 원형 궤도의 베이스가 튀어나오고, 갑자기 가스펠 톤의 목소리들이 신스 멜리스마와 함께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파괴적이고 불규칙적이다. 혹은 그의 음악에서 흑과 벌스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는 그냥 이 앨범 전체를 찬란하고 난해한 본인만의 색깔로 뒤덮은 채, 끝없는 장광설을 늘어놓는 데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ophcore>는 결국 섬니의 음악이다. 섬니의 이름 앞에서 스타일의 현대적 변화나 대중적 전향을 들먹이는 것은 도무지 소용없는 짓이다. 그 적이 사랑이건, 섹스건, 원시주의건, 빈티지이건, 모든 것은 그 고고하고 광신도적인 섬니의 팔세토 안으로 귀결된다. 필자의 생각에 섬니가 청자들을 기이하게 매혹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정신을 자신의 자장 아래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러한 폭력적 구조에 있는 것만 같다.

처음과 끝에서 하나의 짹패를 이루는 "I'm Better(I'm Bad)", "Love's Refrain"의 여닫이는 무엇보다도 '섬니스러운' 요소들로 이루어져있고, 무엇보다도 그냥 잘 만든 음악들이다. 가볍게 가라앉는 베이스와 조증적 신스 스케일은 그 디테일과 미니멀함이 너무 강해서 섬니의 드문 중저음조차 잊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앨범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역시 "Gold Coast"일 것이다.



'In The Yellow, Yellow'라는 그 흑. 거의 최면적으로 청각을 장악하는 이 곡은 갑자기 Frank Ocean의 "Lens"나 James Blake의 <The Colour In Anything>에도 비견될 만큼 멀리 나아갔다. 그 의도적인 공백, 먹먹한 베이스와 드럼, 숨소리는 오로지 신스라는 단서만 추가한 채로 섬니의 목소리를 적막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말하자면 미니멀리즘의 미학, 절제의 고급스러움. "Hey Girl"의 예측불허한 전개를 이미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생각해 보시라. 흥겨운 어쿠스틱 풍 기타에 발칙한 단어들을 속삭이다가 점점 내향적인 분위기로 파고드는 섬니의 가스펠톤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난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라고 갑자기 속삭인다. 동시에 업라이트 피아노의 서정적 선율이 뜯금없이 튀어나온다. 이 기묘묘한 곡 전개 방식을 알지 못하고 "Hey Girl"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초험자의 특권이다. 섬니의 송라이팅은 벌스와 흑이 번갈아 나오다가 브릿지가 나올 것이라는 변증법적 예측들을 모두 부수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곡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길 기대하는 청자들의 감각을 짓이겨버린다. 그는 낭만적인 감각을 믿지 않는다. 말초적이며 본능적인 흐름이 섬니가 신뢰하는 유일의 잣대이다. 섬니는 음악이 결국 앞 뒤로 놓인 짧막한 음형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은 흔치 않은 음악가이다. 그가 신경쓰는 것은 바로 몇 초 전의 주제음과 몇 초 후의 발전, 그리고 섹스일 것이다. 물론 아마 정규 3집이 될 다음 앨범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필자도 예측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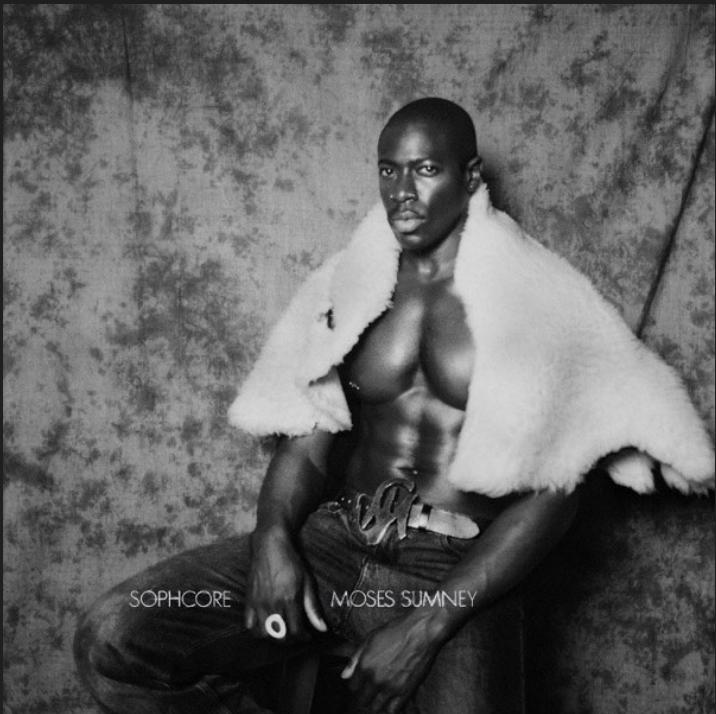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사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솔직히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도 아니지'라는 가사("Hey Girl")가 처음 들렸을 때 필자는 조금 지겹다는 생각을 했다. 에서 뒤틀고, 은유하고, 난해하게 뒤집고, 파괴적으로 생략하며 써낸 <Aromanticism>의 무로맨틱론 가사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가사의 반복, 말하자면 그 상황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니는 여봐란 듯이 곧바로 '나는 아메바야'라고 속삭인다. 섬니의 새 앨범에 관한 사유는 이 대목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섬니는 우리가 짧막한 그의 가사들을 두고 머리를 싸매며 골몰하기를 원한다. 그의 음악에 빠져들고, 그의 가사들을 음미하다보면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다.

글을 마치기 전에. 이 앨범에 단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정규 앨범이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græ>로부터 벌써 4년이 흘렀고, 필자의 생각에 <Sophcore>는 6곡짜리 EP 앨범이 아니라 그 두 배쯤 되는 볼륨의 정규 앨범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섬니는 <Sophcore>를 여섯 곡의 선에서 끝낸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계를 그 이상으로 밀고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열렬한 팬으로



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Blonde>의 다음을 8년째 기다려 왔으며, <TESTING>의 다음을 6년째 기다려왔는데, 섬니는 Frank Ocean이나 A\$AP Rocky의 그 무심한 과작 대열에서 팬들을 구원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Sophcore>의 공개는 그런 점에서 필자를 탄식하게 한다. 하지만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의 음악 세계가 더욱 다채로워졌다는 사실이다. <græ>는 물론 충격적인 전환을 가져온 앨범이었으며, 그 볼륨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지만, 결국 <Aromenticism>의 자장 아래 있었다. 혹은 <Lamentation>과 <Mid-City Island>은 <Aromenticism>의 예행연습이었다. <Sophcore>는 최초로 <Aromenticism>을 떠올리지 않게 한다. 그것은 곧 3집이 가져올 전환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특유의 원시주의적이고 기묘한 분위기의 섬니가 더 좋다. 게다가 필자는 섬니가 <Aromenticism>의 인력권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Aromenticism>은 섬니에게 하나의 저주이다. 아무리 멀어져도 자꾸만 그 곁에 와서 그림자를 드리우는 앨범. 그게 너무 이상하고도 매력적이어서 자꾸만 <Aromenticism>을 섬니의 한계이자 정수라고 설명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한계를 극복하던 혹은 뛰어넘던지 간에, 결국 섬니는 무언가 새로운 걸 가져왔으며 그것을 청자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든다. 음악가의 일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생긴다. 우리는 결국 예술가들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그 과정들을 반복하는 세월의 한복판 속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가을에 발매된다는 <Don't Be Dumb>을 떠올리며 이 글을 마친다.





Sophcore
Moses Sumney
2024.08.02

1. I'm Better (I'm Bad) / 2. Vintage / 3. Whippedashed / 4. Gold Coast / 5. Hey Girl / 6. Love's Refrain



VULTURES

2

Editor 예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과 믿음은 어찌도 이리 극진히 이바지하는가. 그가 산 신실한 공경은 송양하는 절대자에 못지 아니하도다. 그는 정말 영생에 다다르리라 믿어지니라. 고된 발딛음에 깃든 영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을 계명과 같이 보여주옵고도, 어쩌면 이 땅 위에 무한한 종과 믿음을 남길지언정 광채를 휘감은 채 우리의 곁을 떠날 날 역시 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대홍수를 겪은 오랜 과거의 인류는 감히 신에게 달아보고자 하였다. 지도자였던 니모롯 왕의 진두지휘 아래 적신 흙을 불에 굽고 벽돌을 쌓아올리며, 더 높은 땅을 딛고 창공의 끝에 닿고자 하였다. 주제를 넘은 교만과 어리석음엔 징벌이 다가왔다. 바벨탑이라 불리우는 이 불신앙은 언어의 분할에 의해 멈춰섰고, 끝끝내 낙성되지 못한 채 창세기 11장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신의 권능은 원론적인 그 전지전능함에 비해 심히 남발되곤 한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경의로운 위엄과



칭송을 위해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 미력한 미물에게서 범상치 않은 존재를 발견한다면, 극에 달하는 어떠한 개인의 눈부심을 신성의 영역에서 빌려오는 것이다.

필히 주소지를 찾아 밟았을테니 성마른 이들에겐 무요한 머리말이다. <VULTURES 2>를 감상한 이들이라면 기다랗게 늘어놓은 주인공을 익히 아리라. 당신은 어떠한가. 이미 신실한가? 오래 전 잃어버린 영웅인가? 관심 밖의 이름인가? 드높은 명성의 구원자인가?

실로 명확히 찬란했던 순간은, 그의 성정이 무엇에 이르고자 한들 언제나 사려깊은 말장난과 힘있는 전언이 그의 목소리에 닿아있던 찰나들이다. 그는 흔히 졸업 3부작이라 불리는 음반 세 장만으로 입지전적인 위치를 구축해냈다.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맞물리는 주류 음악의 통용 규칙을 최초로 빛어냈다. 세계를 향한 역사상 최고의 사죄예술을 빛어냈다. 우매하다 평할 만큼 어리석게도 몸소 영적인 존재를 자청하기도 했다. 허나 눈감아줄 수 있는 자격에 힘입은 그 호소로 많은 이들을 꾀어내기도 하였다.

그는 감히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어느덧 전설의 반열에 오르고 말았다. 시기는 대략 그의 일대기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간결한 작품 <ye>의 탄생으로 2막의 불씨가 발화하기 전까지. 상상력과 차원의 경계를 헤집고 다닌 창의와 참신으로 뒤덮은 역량은 음악 산업을 넘어 의류, 미술, 건축을 넘어 정계 진출까지 이르게 된다.

그의 지난 성과와 업적을 기리고 재확인하기엔 불필요한 활자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되어야 한다. 기위 서론에서 상당수를 할애 한 뒤다. 하지만 정작 근간이 된 음악에서 이상하리만치 소홀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JESUS IS KING>, <Donda>, <VULTURES 1> 그리고 <VULTURES 2>에 이르는 그를 지켜보아라. 작금의 그는 너무나 위태로워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감이 넘치지만, 과거와 달리 한참 뒤지는 역량만이 도드라진다. 기억해야한다. 이카로스의 밀랍은 언감히 높은 비행에 장렬히 불타버렸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요한복음 8장 23절

No I.D., Just Blaze, Mos Def와 Common을 비롯한 수많은 과거의 이름들. 또는 Pusha T, Kid Cudi, 070 Shake와 같은 조금의 시



간이 더 지난 이름들. 그리고 오늘날의 Ty Dolla \$ign, Digital Nas, Future 그리고 North West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우와 결별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으나, 모든 융합은 그를 필두로 알맞게 배치되며 고르고 일률적인 퍼즐을 완성해왔다. 분명히 그래왔다. 이제 긴말할 것 없이 축자적으로 곧장 <VULTURES 2>를 청취해보자. 자. 대체 이 앨범은 누구의 것인가?

전작에 비해 더욱 미미한 <VULTURES 2>의 감상은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모든 결집의 주체인 그에겐 보이지 않는다. 도통. "FIELD TRIP"의 3인방(Don Toliver, Playboi Carti, Kodak Black), "FRIED"를 암도하는 훌리건들, "530"을 간결히 장식하는 Swsh, 하다 못해 미사여구가 불필요한 "BOMB"에 이르기까지. 뜻을 구하고자 그를 쫓아 당도한 낙원엔 정작 그가 없다. 힙합씬의 슈퍼스타들이 즐비한들 그의 이름값을 따낸 특출히 매력적인 곡은 없다시피하고, "530"과 "HUSBAND"의 이야기는 너무나 짧고 과거의 명곡들 만큼 인상적이지 못한다. 모든 관심과 주의가 객원 아티스트들에게 쏠렸음을 확인한 뒤 다시 한 번. 그는 대체 어디 있는가.

이 지점에서 <VULTURES 1>과의 비교가 필수불가결적이다. "BACK TO ME"의 명청하지만 중독적인 킬링파트도, "BURN"에서 드러난 1분 안팎의 번뜩임도, "BEG FORGIVENESS"와 "GOOD (DON'T DIE)" 등으로 뽐낸 장엄함도 남지 않은 채 완벽히 소거된 듯하다. 비록 여러 수정 작업을 거치며 더욱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변했을지언정, 본작은 그저 개인 아티스트 사단의 유사 컴필레이션 앨범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두 아티스트의 잠재력 표출도, 16곡이란 기회 중 어떠한 히트곡들을 터뜨리지도, 앨범 전체적인 응집력이나 특색 있는 예술적 시도들을 돌보이게 만들지도 못했다. 단연 그의 작품들 중 가장 아쉬운 결말값이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는 지금도 타고난 천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시선을 놓친 뒤통수에 상처들이 남아도 결코 뒷걸음질치는 법이 없었다. 마치 빗발치는 열병기에 둘러싸인 존 워의 꼴이 된다 한들, 그를 꺾으려는 좌절의 순간이 수십 번이었다 한들, 그는 결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 긍지가 유효하지 않을 뿐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과거의 찬란함이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익히 알려진 그의 사건사고들을 보면 오늘날은 어느덧 그의 이름을 접하는 순간들이 음악과 무관해지는 상황도 그리 예삿일이 아니게 되었다. <VULTURES 2>의 평가들을 살피면, 이젠 그의 음악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가 되레 어리석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수많은 추종자들의 절대자로 추앙 받는 그이지만, 과연 지금의 그는 이대로 영원한 삶을 얻을 것만 같은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 요한복음 8장 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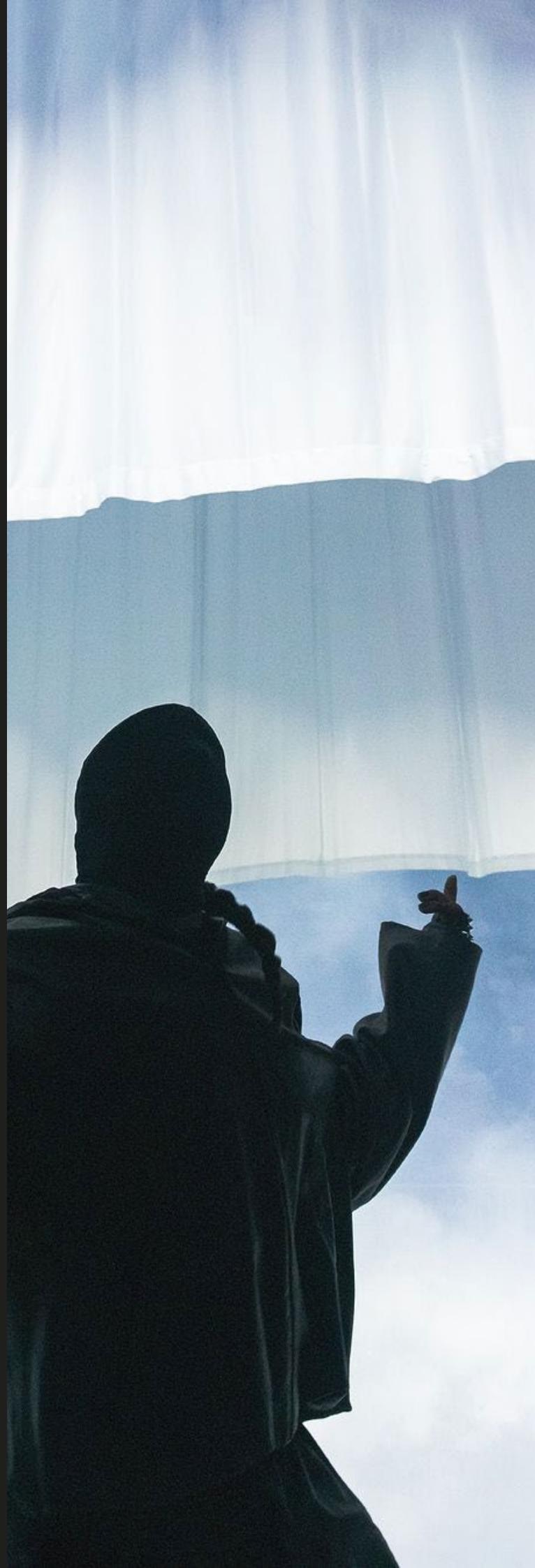


VULTURES 2

¥ \$

2024.08.03

1. SLIDE / 2. TIME MOVING SLOW (Ft. The Inter Milan Ultras) / 3. FIELD TRIP (Ft. Don Toliver, Kodak Black & Playboi Carti) / 4. FRIED / 5. ISABELLA / 6. PROMOTION (Ft. Future) / 7. HUSBAND / 8. LIFESTYLE (Ft. Lil Wayne) / 9. FOREVER / 10. BOMB by ¥\$, North West & Chicago West / 11. RIVER (Ft. Young Thug) / 12. 530 / 13. DEAD (Ft. Future & Lil Durk) / 14. FOREVER ROLLING (Ft. Lil Baby) / 15. SKY CITY (Ft. 070 Shake, CyHi & Desiigner) / 16. MY SOUL (Ft. Big 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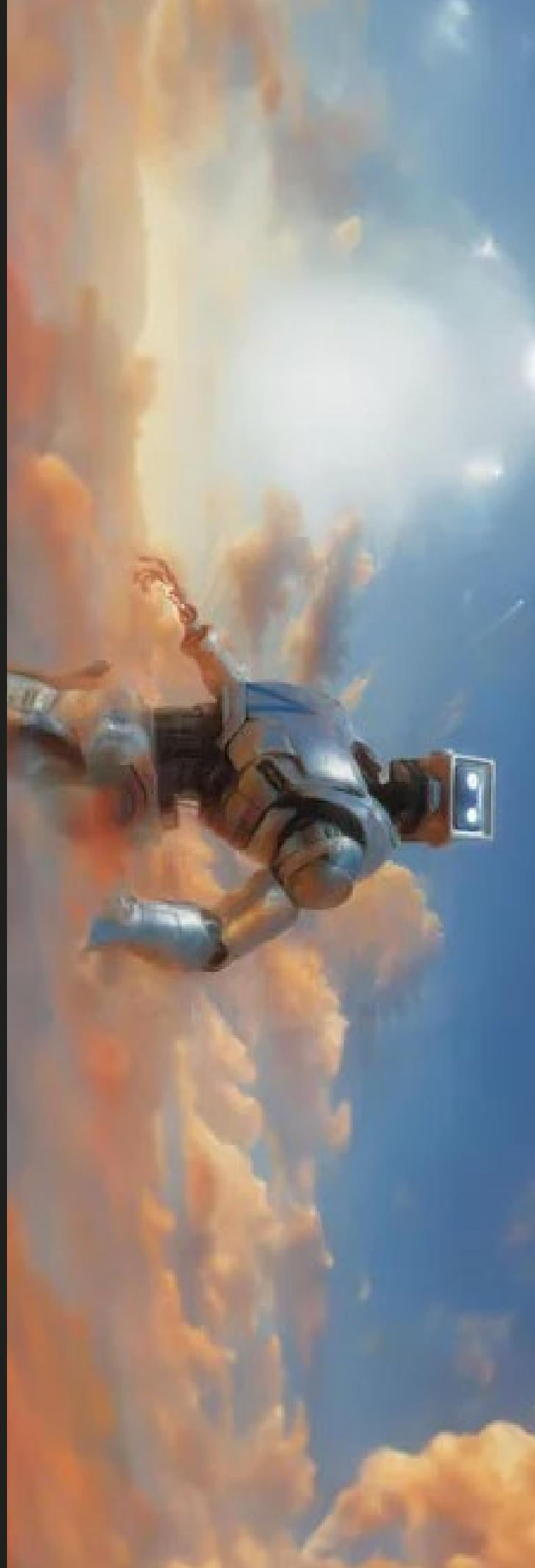


Ultra 85

Editor moogsick

로직(Logic)이 돌아왔다. 아니, 이제야 사람들이 그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2014년 <Under Pressure>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꾸준히 작업물을 발매해 온 그지만 뮤리스너들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졌다. "1-800-273-8255", "Homicide"라는 히트 싱글 및 대중적 성공과는 별개로 이 시기 발매한 두 정규 <Supermarket>과 <Confessions of a Dangerous Mind>가 매서운 혹평을 받았으며 그렇게 한 루키가 그저 그런 래퍼로 전락하는 듯했다. 본격적인 재기의 조짐이 감지된 것은 2020년대 들어 언 달아 낸 <No Pressure>, <Vinyl Days>부터였다. 자신의 원래 장기를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과거의 향수를 먼지 덮인 질감의 블루에 녹여낸 작품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으며, <Ultra 85>는 비로소 로직의 새로운 전성기를 널리 알린다.

동일하게 우주를 배경으로 한 <The Incredible True Story>의 프리퀄 격인 본작은 오프닝 "Paul Rodriguez"부터 청자를 단숨에 압도한다. 로직의 지인인 스케이트보더 P-Rod의 육성을 빌려 막을 열어젖힌 후 이어지는 로직의 래핑은 데뷔 초기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적이고 왕성하다. 여태까지의 성과를 총망라한 후 자신에게 영향을 준 수많은 동료 래퍼, 그리고 힙합 문화 자체에 감사를 보내는 그의 목소리는 초장부터 이 앨범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최근 Camila Cabello의 "I LUV IT"에서도 사용됐던 "Lemonade"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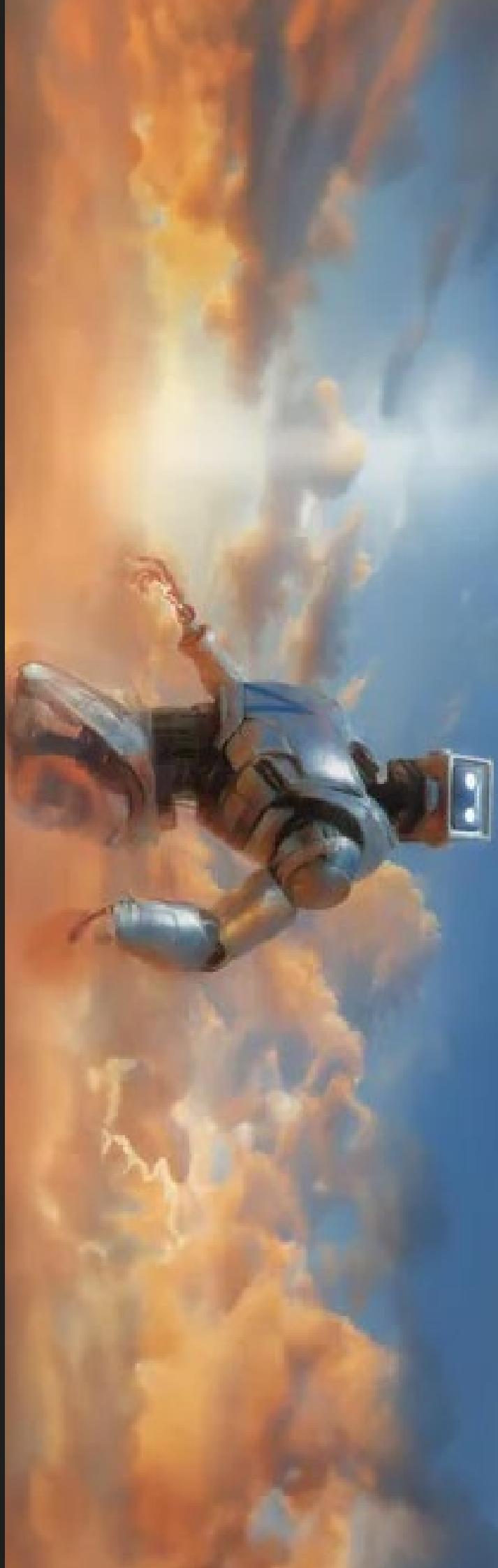
풀을 재해석한 뱅어 "Mission Control", DJ Drama가 힘을 보탠 "Déjà vu"를 지나 로직의 두 매력을 보여주는 "Fear"에 다다르기까지 앨범의 초반부는 빠른 속도를 유지한 채 중간중간 스킷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 시점에서 간략하게 작품의 서사를 확인해 보자. 현실 시 간상 <The Incredible True Story>가 먼저 발매된 것과는 다르게, "Paul Rodriguez" 후반 스킷의 첫 마디 'So, you're my partner?'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Ultra 85>는 로직의 서로 다른 두 면모를 상징하는 캐릭터 Thomas와 Kai가 처음 만났을 당시를 그린다. 이를 인지한다면 뒤이은 내용이 둘의 우주 모험을 그려낸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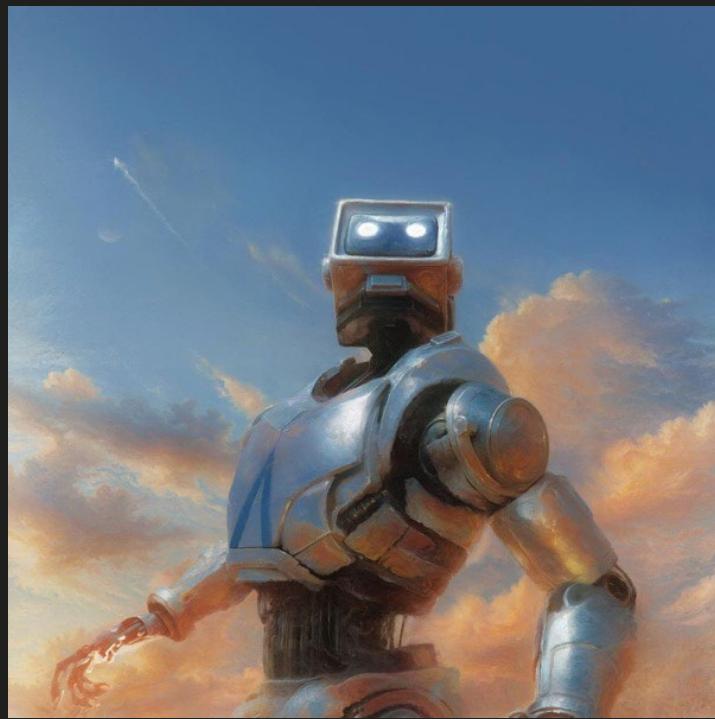
본래 블루스을 통해 이름을 알린 로직인 만큼 <Ultra 85> 또한 다양한 스타일의 블루스을 중심으로 한다. 전반부가 다소 전형적인 재즈 힙합 작법을 축으로 삼았다면 이후에는 보다 넓은 폭의 프로덕션을 선보인다. 절묘하게 샘플을 커팅한 "Gardens III"와 "Ghost in the Machine", Amen break를 활용한 "LOVE ME" 사이의 트랩 "44ever"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몇 없는 피처링인 ZelooperZ가 참여한 "ANTIDOTE" 역시 공간감을 중시한 프로듀싱으로 긴장을 이어가는 전개가 인상적이다. 이 모든 트랙에서 로직의 퍼포먼스는 한결 같이 견고하고 타이트하다. 빠른 랩을 주무기로 삼되 적절히 강약을 조절하고 멜로딕 랩으로 전환하는 구성에서 어느새 그가 완연한 베테랑으로 거듭났음이 보인다.

로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금세 후반부에 다다랐을 터, 마지막 네 트랙은 지금까지 먼 길을 따라와 준 청자를 향한 그의 감사 인사다. 따뜻한 무드의 비트 위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 취향, 어릴 적 들었던 Wu-Tang Clan과 The Roots, 그간의 소회를 풀어놓는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자연스럽고 후련해 보인다. <Ultra 85>가 일련의 은퇴 해프닝을 겪으며 수년간 딜레이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 엔딩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는 곧 로직 자신뿐만 아니라 팬들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한 챕터가 끝났을지언정 모험은 쭉 이어질 것임을 알리는 말미의 'See you on the next one, cowboy'는 기분 좋은 예고다.

작금의 힙합 씬, 더 나아가 팝 시장 전체는 점차 축소에만 몰두하는 중이다. 긴 러닝 타임보다 30분 내외로 짧게 끊는 쪽을 선호하며, 걸출한 음반보다 히트 싱글 하나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로직은 이러한 시류에 정면으로 맞선다. 콘셉트 앨범, 20트랙



에 80분이 넘어가는 볼륨, 여러 스kit까지 분명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Ultra 85>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래퍼가 밟아 왔던 정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에서 여태껏 속전속결의 자극에 빠져 있었던 리스너들을 다시 전통적 가치로 되돌리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9분 길이의 첫 트랙, 1시간 17분이라는 전체 분량에 겁먹을 필요 없다. 일단 재생 버튼을 누르면 로직은 당신을 바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날려 보낼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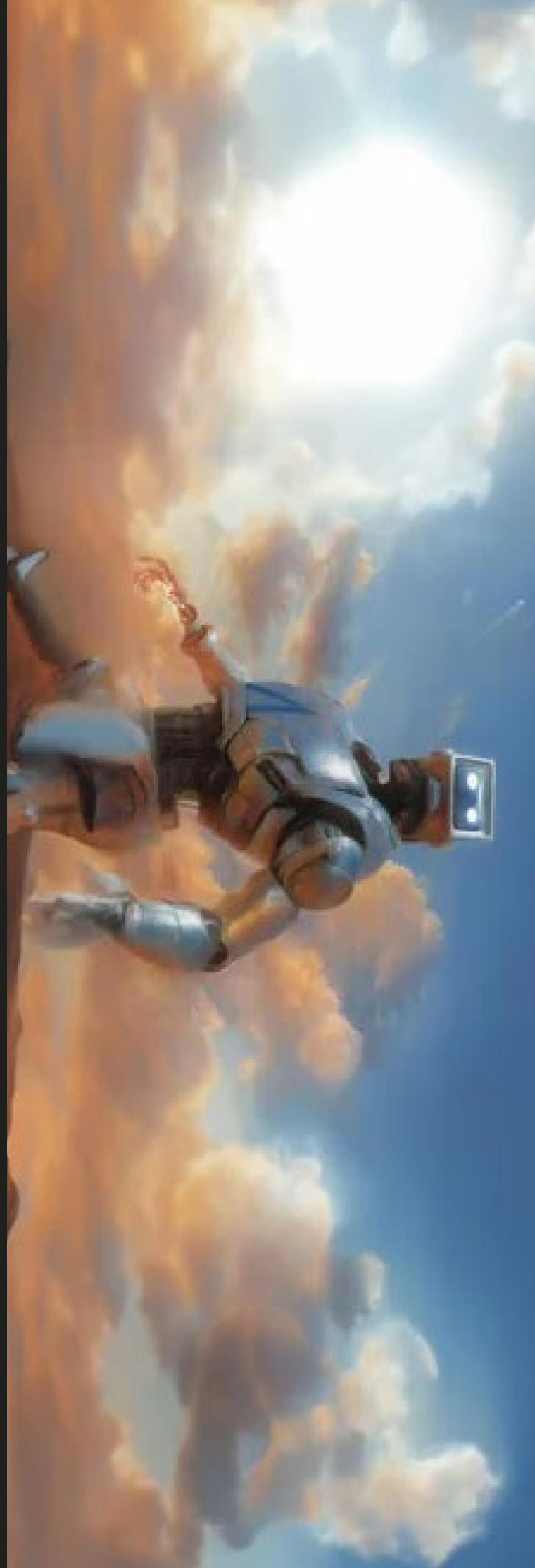


Ultra 85

Logic

2024.08.09

1. Paul Rodriguez / 2. Mission Control (feat. T Man the Wizard) / 3. Deja Vu (feat. DJ Drama) / 4. Glorious Ultra Panavision (skit) / 5. Fear / 6. Favela / 7. Gardens III / 8. Ghost in the Machine (feat. Robert Ivory x ADE) / 9. Innerstellar / 10. In Retrospect / 11. 44ever / 12. LOVE ME / 13. Planet Death (skit) / 14. Teleport / 15. Chess (skit) / 16. ANTIDOTE (feat. zelooperz) / 17.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 18. Peace Love & Positivity / 19. City in the Stars (feat. Robert Ivory) / 20.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



F-1 TRILLION

Editor 자카

컨트리 장르는 작년을 기점으로 '가장 잘 나가는 장르'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들은 사냥꾼처럼 옷을 입기 시작했고, 기타를 쥐고 노동자들의 삶을 절규하며 노래한 남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내슈빌과 같은 도시에선 컨트리 음악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을 추진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올해 초 Beyoncé는 컨트리 장르의 새 앨범 <COWBOY CARTER>에서 로데오 퀸의 모습으로 분하고 성조기를 흔들었으며, Quavo와 Lana Del Rey는 "Tough"의 뮤직비디오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가죽 부츠를 신으며 농업인을 연기했다. Billie Eilish, Olivia Rodrigo, Travis Scott, 심지어는 Taylor Swift까지 수많은 팝스타들의 컴백에도 컨트리 아티스트들은 차트에서 보란 듯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여름이 되어도 Sabrina Carpenter의 "Espresso"와 같은 청량한 팝 트랙이 아닌, Shaboozey의 "A Bar Song (Tipsy)" 같은 복고풍 컨트리 음악을 더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스트 말론(Post Malone)과 Morgan Wallen의 합작 트랙, "I Had Some Help" 역시 현재 빌보드 차트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대체 왜 포스트 말론 힙합이 아닌 컨트리를 선택한 것일까?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9년 전, 그가 데뷔했던 2015년 2월로 돌아가야 한다. 데뷔곡 "White Iverson"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때,



그는 많은 이들로부터 음악적 정체성에 관한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 당해 XXL Freshman Class에도 '힙합보다 컨트리, 락, 팝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는 혹평을 들으며 선정되지 못하였고, 어릴 적부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들어온 탓에 씬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그는 2016년 "나는 래퍼가 아니다, 장르는 구속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며 몇 달 후에는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30살이 되면 나는 포크/컨트리 가수가 될 거야". 그리고 <F-1 Trillion>은 결국 그가 29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나서 발매되었다.

포스트 말론이 오랫동안 품어온 꿈의 성취와도 같은 앨범 <F-1 Trillion>은 그의 애정과 행복한 감정이 가득 담긴 작품이다. 18트랙, 1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 동안 그는 수많은 컨트리 스타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며 수많은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하나의 전시 장과도 같은 광경을 연출한다. 앨범 최대의 히트곡인 "I Had Some Help"에서 그는 Morgan Wallen과 함께 맥주와 청바지를 걸치고 노래하며, "Wrong Ones"에서는 Tim McGraw와 커리어 초기에 겪었던 과도기를 회상한다. 이후 그는 "Pour Me A Drink"에서 Blake Shelton과 함께 상반되는 보컬 스타일에서 의외의 조화를 이루어내며 재치 있는 가사를 내뱉고, "M-E-X-I-C-O"에서는 Billy Strings와 함께 격렬하고 폭발적인 연주를 보여준다.

컨트리의 유일무이한 여왕 Dolly Parton과의 콜라보 트랙 "Have The Heart"는 포스트 말론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Parton은 그녀의 고전적인 매력을 보여주었고, 둘은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떠난 사람과 재회하는 경험을 노래한다. "Nosedive"에 힘을 보탠 Lainey Wilson의 매혹적인 보컬은 곡에 강렬한 그리움을 더하는데,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더 집중적으로 비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홀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포스트 말론이 피처링 없이 홀로 기타를 잡고 노래를 한 트랙은 많지 않다. 그중 앨범 최고의 곡이라 단언할 수 있는 "Right About You"는 자신의 슬펐던 과거를 회상하는 트랙이다. 'I made all my money singin' so sad and lonely songs But all my diamonds came from dirt'.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날카로운 작사 법을 보여주었는데, 동시에 컨트리 특유의 언어유희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F-1 Trillion>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잔치 같은 작품이다. 물론 그의 독특한 사운드가 희석되었고, <COWBOY CARTER>에서 보았던 실험적인 요소들도 없다. 내슈빌의 정통파



들이 과연 그를 환영해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포스트 말론은 또 한 번 자신의 창의성과 상업적 매력을 증명해낸 것만 같다. 그가 컨트리 최전방 아티스트가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좋은 컨트리 음악을 만들었고, 훌륭한 송라이팅 역량을 보여주었다. <F-1 Trillion>은 수많은 차트를 지배하게 될 운명이며, 이 다음에 그가 과연 어떤 작품을 들고 올지 기대가 되면서도 —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 뭐가 됐든 그는 기타를 쥐고 컨트리 스타들과 노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F-1 Trillion

Post Malone

2024.08.15

1. Wrong Ones (feat. Tim McGraw) / 2. Finer Things (feat. Hank Williams Jr.) / 3. I Had Some Help (feat. Morgan Wallen) / 4. Pour Me a Drink (feat. Blake Shelton) / 5. Have The Heart (feat. Dolly Parton) / 6. What Don't Belong To Me / 7. Goes Without Saying (feat. Brad Paisley) / 8. Guy For That (feat. Luke Combs) / 9. Nosedive (feat. Lainey Wilson) / 10. Losers (feat. Jelly Roll) / 11. Devil I've Been (feat. ERNEST) / 12. Never Love You Again (feat. Sierra Ferrell) / 13. Missin' You Like This (feat. Luke Combs) / 14. California Sober (feat. Chris Stapleton) / 15. Hide My Gun (feat. HARDY) / 16. Right About You / 17. M-E-X-I-C-O (feat. Billy Strings) / 18. Y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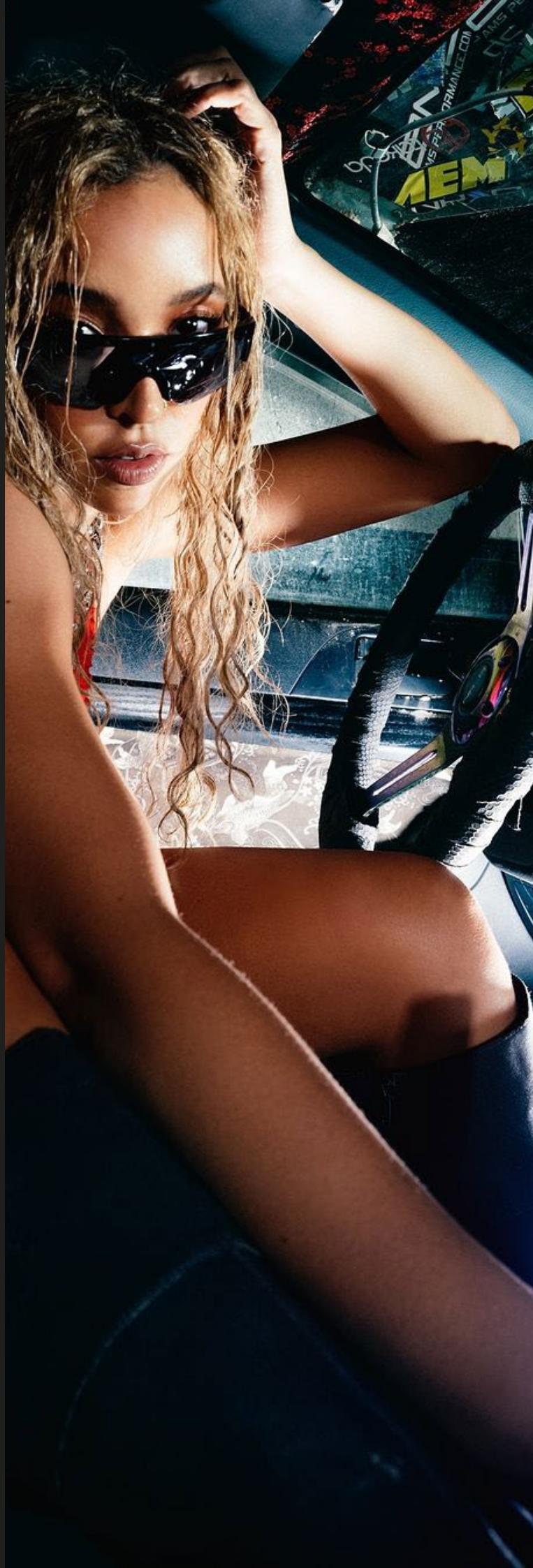
QUANTUM BABY

Editor 스룩산

작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준 <BB/ANG3L> 시리즈의 일환, <Quantum Baby>는 시작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클럽가를 강타한 Kendrick Lamar의 디스곡 "Not Like Us"의 하이피(Hyphy) 유행에 편승한 탓일까, 4월 발매한 선공개 싱글 "Nasty"의 히트로, 티나세(Tinashe)는 "2 On" 이후 정말 오랜만에 (자그마치 10년 만이다) 메인스트림에서 뛰노는 쾌거를 이룬다. "Nasty"의 히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Quantum Baby>는 꽉 조여져 묵직한 인상을 준 전작에 비해 훨씬 말랑말랑하며 부드럽다. 비록 "Red Flags"과 같은 일부 트랙은 <BB/ANG3L>에 실려도 무방할 유사성을 보여주지만 말이다.

<Quantum Baby>가 나타내려고 한 기조, 이를 가장 잘 보여준 트랙은 "Getting No Sleep"과 "No Broke Boys" 정도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가볍지만 일부 첨가된 자유로움과 에로틱, 이것이 혼용되어 티나세 음악 특유의 성숙함을 자아낸다. 그중 "Getting No Sleep"은 상대적인 로우톤에서 어떠한 대상에 속박된 채, 바람을 자유로이 만끽하는 그녀의 모습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앨범 내내 이러한 수동적 면모와 능동적 면모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제시되는데, 이 전달 방식이 다소 독특하다.

티나세가 관능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터,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위협에 동조된다. 우리가 이런 신비스런 감정에 훨싸이기도 하는 이유는 —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티나세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불특정 다수를 뱀과 같이 seduce(: 유혹하다, 꾀다)하고 있는 동시에, 본질적인 위협 내지 적대감 역시 느끼고 있는 것. <Quantum Baby>에서는 이렇게 용맹한 특성이 흐릿한 기법으로 전작에 비해 강조되며 — 청자를 눈에 보이지 않게 옮아맨다.

하지만 <Quantum Baby>에서 택한 느슨함은 어쩔 수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BB/ANG3L>에 비해 독창적이지 않다. 독창적이지 않다기 보다, 티나세 그녀만의 독자성을 드러내기에는 전작이 더 탁월한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 든다. 개별 트랙만 따로 떼어놓아보면, 여전히 일정량의 퀄리티를 선보이고 있다. "Nasty"는 말할 것도 없고, 비슷한 무드지만 조금 더 경쾌한 트랙 "No Broke Boys" 역시 재미를 보장하는 트랙이다. 개인적으로 또 다른 뱅어 트랙으로 꼽고 싶은 "When I Get You Alone"은 티나세의 가성과 대조되는 808 베이스의 무자비한 타격감이 하이프를 이끌어낸다. 후반부에는 부드럽게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티나세 뮤직'이다.

문제는 몰입감이다. <BB/ANG3L>에서의 "Talk To Me Nice", "Needs", "Gravity"로 이어지던 그 스무스함이 <Quantum Baby>에서는 자꾸만 톡톡 끊겨버린다. 이렇게 흐릿하지만 느슨한 기조를 유지하는 앨범에는 역설적으로 조금 더 긴 러닝타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22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채택하는데 — 이는 가벼움이 아닌 미숙함(under-developed)을 도드라지게 만든다. 가장 큰 패착은 "Nasty"를 중반부가 아닌 심지어 클로저로 배치시키며 앨범을 부리나케 끝내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나름 "No Simulation"으로 성공적인 무드를 형성했던 초반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Quantum Baby>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색채가 다소 열어지긴 했어도, 티나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섹슈얼리티와 메인스트림·언더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특수한 위치에서 선보일 수 있는 음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빙빙 배회하기만 하며 깊숙이 찔러대진 않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면 관능적으로 비춰질지 잘 파악하고 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올해 최고의 뱅어 "Nasty" 하나만으로 그녀의 성공을 예찬할 요건이 충족되며, 아마 내년 즈음 발매될 3부작의 마지막 역시 충분히 기대해 봄직 싶다.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 필자는 <Quantum Baby>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그 숨 고르기는 오케이 사인을 보낼 정도는 됐다.





Quantum Baby

Tinashe

2024.08.16

1. No Simulation / 2. Getting No Sleep / 3. Thirsty / 4. Red Flags / 5. Cross That Line / 6. When I Get You Alone / 7. No Broke Boys / 8. Nasty



Classic Review



STRESS:
THE EXTINCTION
AGENDA

*Kush
&
Orange Juice*



STRESS: THE EXTINCTION AGENDA

Editor 온암

1994년, 그 해는 유독 힙합에게 축복과도 같은 한 해였다. <Illmatic>과 <Ready to Die>부터 시작해 <Hard to Earn>, <Regulate... G Funk Era>, <Resurrection>과 <Southernplayalisticadillacmuzik> 등, 각지의 유망한 아티스트들이 훗날 클래식으로 추앙받을 역작들을 연달아 배출한 만큼 힙합의 1994년은 골든 에라의 빛나는 연도 중에서도 종종 최고봉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개중에는 걸출한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비교적 잘 조명 받지 못하는 음반들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주로 장르의 매니아들에 의해 발굴되며 재평가가 진행되는 편이다. 지금부터 자랑스럽게 소개할 오가나이즈드 컨퓨전(Organized Konfusion, 이하 OK)의 <Stress (The Extinction Agenda)>는 평론지와 매니아들을 막론하고 만장일치의 찬사만을 받는 명반 중의 명반이다.

OK의 두 래퍼인 파로아 먼치(Pharoahe Monch)와 프린스 포(Prince Po)의 경력은 1987년부터 시작됐다. 'Simply II Positive MCs'라는 이름으로 프리스타일 공연과 싱글 발매를 반복하며 기회를 모색하던 그들은 1991년 마침내 정규 1집 <Organized Konfusion>을 발매하며 씬에 그들의 이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후속작 못지 않은 평가를 받는 그들의 셀프 타이틀 음반은 파로아 먼치와 프린스 포의 현란한 래핑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회자되었던 것은 앨범의 모든 수록곡을 본인들이 직접 프로듀싱했다는 사실이다. 언더그라운드의 아마추어 힙합 아티스트



에 불구하고 래핑과 비트메이킹을 동시에 도맡아 담당하는 천재성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황금기 최고의 듀오 중 하나로 회자되는 주된 이유에 해당한다.

<Stress (The Extinction Agenda)> 역시 프로덕션 면에서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서서히 떠오르던 프로듀서였던 Buckwild 가 제작한 "Stress", "Thirteen", "Why"와 Redman의 친우 Rockwilder가 제작한 "Maintain" 정도를 제외하면, 앨범의 모든 곡들은 역시 OK에 의해 프로듀싱되었다. 그들의 비트는 기술적으로 특별히 혁신적이진 않았으나, 언제나 양질의 완성도를 보장했다. 힙합의 근본을 엄수해 골격에 해당하는 드럼 브레이크는 대부분 평크에서 추출하되, 피부 조직에 해당하는 메인 멜로디 라인은 재즈에서 샘플링했다. 견고한 드럼을 기반으로, 재즈 특유의 베이스는 리듬감을 증폭시키고 샘플에 포함된 건반악기와 현악기들은 곡의 분위기를 충만히 조성한다. 동부 힙합답게 앨범의 톤은 주로 어둡고 중후하나, 후반부 "Let's Organize"와 "3-2-1" 등의 수록곡들이 분위기를 적절히 환기하며 45분 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파로아 먼치와 프린스 포가 선사하는 프리미엄 품질의 랩 퍼포먼스야말로 앨범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Stress (The Extinction Agenda)>의 프로덕션이 그 자체로 몇 번 들을 가치 정도는 있는 정도라면, 래핑은 업계 차원에서 두고두고 연구되어야 할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로 후대 래퍼들에게 교과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이나, OK의 랩은 동시대의 소수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경지의 것이었다. 엄청난 발성과 능수능란한 다음절 라이밍,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비트를 완전히 이해한 듯한 현란한 플로우로 둘은 청자의 혼을 쑥 빼놓는다. "Let's Organize"에서 Q-Tip의 흑을 주축으로 파로아 먼치, 프린스 포, O.C., 세 명의 MC가 전개하는 최상급 라임의 향연과 "Stay Bullet"에서 총알의 입장으로 서술되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기법 등, 본작은 랩 팬들이 래퍼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감을 충족시킨다. 다만 듀오 중에서도 파로아 먼치가 프린스 포보다 한 수 위인 MC임은 자명해 보인다. 귀에 확 띠는 하이톤의 발성과 기묘하리 만치 모든 단어를 상쾌하게 내뱉는 전달력을 기반으로 쉴 새 없이 라이밍하는 그의 리릭시즘은 힙합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드물다. 특히 "Bring It On"에서 그가 선보인 역사적인 벌스는 골든 에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벌스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본래 래퍼였던 프린스 포와 달리 파로아가 비트박서로 커리어를 시작했음을 떠올렸을 때 꽤나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Stress (The Extinction Agenda)> 이후 듀오는 3집을 발표했고,



이후 프로모션 부족으로 인해 해체를 결정하며 각자의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파로아 먼치는 당시 언더그라운드를 주름잡던 로커스 (Rawkus) 레이블에 들어가며 또 하나의 명반인 <Internal Affairs>를 제작하는 등 나름대로의 족적을 남겼다. 비록 훌륭한 음악적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혹독했으나, 그들이 본작과 그들의 경이로운 래핑으로 아직까지 기억되는 것만은 힙합에게 있어 소소한 경사라 평할 수 있다. 당장 한국의 가장 스킬풀한 MC 중 한 명이 OK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파로아 먼치와 프린스 포가 남긴 발자취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니더라도 발자국 하나씩을 아주 제대로 찍은 듯 싶다.



Stress: The Extinction Agenda

Organized Konfusion

1994.08.16

1. Intro / 2. Stress / 3. The Extinction Agenda / 4. Thirteen / 5. Black Sunday / 6. Drop Bombs / 7. Bring It On / 8. Why / 9. Let's Organize (featuring O.C. and Q-Tip) / 10. 3-2-1 / 11. Keep It Komung / 12. Stray Bullet / 13. Main-tain



Kush & Orange Juice

Editor 감상주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곳에는 낙원이 펼쳐져 있다. 갑갑하고 허탈한 일상 대신에 말이다. 남의 눈치 따윈 보지 않고 마리화나를 퍽퍽 피워가며, 여차하면 그깟 업무쯤이야 아무런 미련 없이 미뤄두고, 밤늦게까지 종일 파티를 벌이는 것이다. 어째서 상상으로만 만족해야 낭만인가? 낭만은 실천함으로써 쟁취하는 것. 그것이 위즈 칼리파(Wiz Khalifa)의 청사진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를 점차 잊어가고 있는 중인 듯 하지만, 한 때 그를 열렬히 지지해 왔던 일명 테일러 GANG(Taylor Gang)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갈망하던 자들의 외침을 말이다. "Taylor Gang or Die!" 갈수록 '세상의 흉흉함'과 '현실의 각박함'에 대한 근심과 푸념이 많아지고 있는 요즈음, 다시 꺼내 들기에 시의적절한 슬로건 일 테다.

"Black & Yellow"나 "Young, Wild and Free"처럼 힙합 문외한 들조차 익히 들어보았을 정도의 메가히트곡들이 있기 전에도, 위즈의 낭만주의적 마리화나 앤덤은 훨씬 일찍부터 핫 트렌드였다. 믹스 테이프 <Kush & Orange Juice>가 바로 그 증표로, 무료 배포라는 화끈한 마케팅과 더불어 발매 직후 트위터 및 구글에 작품명의 해쉬 태그가 검색어 1위를 자랑한 바 있다. 앨범 타이틀에서부터의 노골적인 어필은 이와 같은 화제성에 한몫을 더했다. 상쾌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하는, 아니나 다를까 마리화나("Kush; 강성 마리화나의 일종



이자 은어") 찬양이라니!

그의 찬가에는 맥락상 두 명의 래퍼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 중 한 명은 모두가 비슷하게 떠올릴 Snoop Dogg일 것이며, 나머지 한 명은 Devin the Dude이다. 이 셋으로 밴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가정해 보자. 정중앙의 배경에는 당연히 몽롱하고 무성한 '잡초' 색을 띨 것이며, 텍스트로는 여유로움과 능청스러움이 쓰일 것이다. 이외에 비교 대상과 위즈와의 개별적인 교집합을 결정짓는 측은 향락주의이다. 향락의 배경적인 측면은 Dogg과 비슷하고, 반면에 성격적인 측면은 Devin과 더 비슷하다.

전자를 논한다면, 둘의 향락주의에는 자수성가가 밑바탕이 되어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극적인 브래거도시으로 전환시킨다. 더 구체적으로, Dogg에게는 그것이 곧 화려함을 더해주는 방식인 반면, 위즈에게는 진취적인 서사를 더해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후자를 논한다면, 위즈의 캐주얼함은 Devin의 낙천주의와 결이 일치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화려한 삶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않고 일상에서의 느긋함과 긍정론을 태연하게 고수할 것만 같다. 이 웃집의 형과 소파에 앉아 농담을 주고받듯 그저 유쾌하고 친근할 뿐이다.

두 선배로부터 이어받은 Self-made와 Just-chillin'의 정신 어딘가에서 위즈는 온전한 자신만의 무기를 한 가지 더 가져간다. 그를 주간 검색어 1위의 인물로, 세월이 좀 더 지나 빌보드가 가장 좋아하는 랩스타 중 한 명으로 거듭나게 한 비장의 무기를 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친화성(Intimacy)이다. 상기한 친근함이 위즈의 인간적인 애틀튜드와 바이브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면, 친화성은 엔터테인먼트의 관점에서 그의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는 자신의 팝적인 감각을 초기에부터 충실히 어필해 왔다. 자신의 단순하고 부드러운 랩 스타일을 캐주얼함에만 그치게 하지 않고, 팝 랩으로서의 커머셜함으로 승화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물론 혹자에겐 그 재주가 위즈를 경멸하는 이유가 됐지만, 또한 이후 그의 작품들에서 더 이상 장르적인 재미를 느낄 수 없는 한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Kush & Orange Juice>에서 만큼은 매력으로 작용했다. 진부하거나, 아니면 꽤나 불편하게 느낄 만한 소재들을 가지고도, 취향이 서로 다른 친구들과 드라이브하면서 편안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역량이다. 이를테면 어느 누구든 "Mezmorized"의 통통 튀는 리듬과 나른한 신스 샘플을 들으면서도 기분을 릴랙스 하지 못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혹은, "We're Done"을 들으면서도, 춤이 함께하는 야외 저녁 파티를 떠올리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거부 반응을 일으키려는 이들의 마음조차도 자연스럽게 열고, 자신이 꿈꾸는 낭만에 함께하도록 만드는 힘. 테일러 갭의 세력은 그렇게 단숨에 커질 수 있었다. 어쩌면 은근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본작의 메시지를 당신이 어렵지 않게 흡수했다면, 한 때 가볍게 흘려들었던 "Young, Wild and Free"의 입체적인 의외의 감흥도 재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리라. 그렇게 된다면, 그가 다소 촌스럽게 주창해 온 헤도니즘과 로맨티시즘으로부터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위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좋다. 잠깐이나마 한가로움을 즐기며 현실이 낭만적으로 느껴지길 원한다면 본 작을 포함한 그의 초기작들은 꽤나 유용하게 다가올 것이다.



Kush & Orange Juice

Wiz Khalifa

2010.04.14

1. Waken Baken / 2. Mezmorized / 3. We're Done / 4. Skit 1 / 5. The Statement / 6. Spotlight (feat. Killa Kyleon) / 7. Skit 2 / 8. The Kid Frankie / 9. Up / 10. Never Been / 11. In tha Cut / 12. Visions / 13. Still Blazin' (feat. Alborosie) / 14. Slim Skit / 15. Pedal to the Metal feat. Johnny Juliano / 16. Good Dank / 17. Skit 3 / 18. Glass House (feat. Curren\$y & Big K.R.I.T.) / 19. Outro / 20. Supply (feat. Nesby Phips)

Featured



¥\$
Vultures
Listening Experience
Korea
082324

KHL
칸봉이들
정모현장

칸예
리스닝파티
후기

Featu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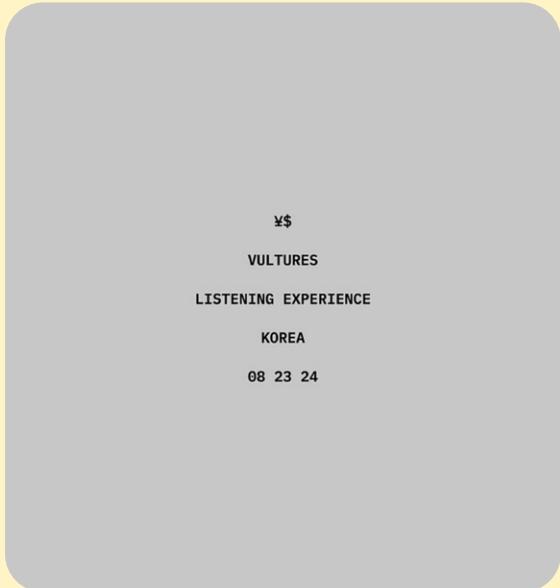
¥\$

Vultures
Listening Experience
Korea
082324



온암

안녕하세요 에디터 여러분! 칸예 웨스트와 타이 달라 사인의 <VULTURES LISTENING EXPERIENCE KOREA>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을 모아보았습니다 ㅋㅋ 먼저 공연 전의 소감을 나눠보실까요??



데 올라가는 내내 숙취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뻔 함. 진짜 괜히 간다했나 백 번은 생각한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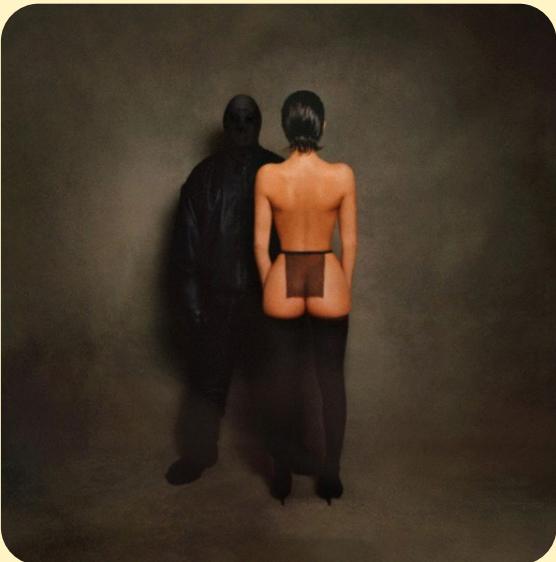
온암

트래비스 스캇 게스트를 운운하는 칸순이들이라 ㅋㅋ 역시 칸예 팬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 게스트로 스캇이나 카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denim 님은 어떠셨나요?

● @온암

denim

가려고 집을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칸예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기운이 좀 올라오려나 싶어서 지하철에서 전집 플레이리스트를 랜덤 재생했는데, 그래도 뜨뜻미지근해 Magdalena Bay 새 앨범, King Gnu 앨범 등 다른 가수들 음악만 주구장창 들으면서 한 시간 반을 갔다.



SongChico

'칸예를 실제로 보는 일이 내 생에 또 있을까...?'하는 마음에 아문따 예매했지만 <VULTURES 2>의 퀼리티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관련 악재에 몇 번이나 취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칸예를 실제로 보는 것은 포기하지 못해 공연 전부터 몇번 씩이나 <VULTURES 2>를 돌리고 또 돌리며 제발 무사히 열리길 기도했습니다.



스룩산

사실 2주 전까지는 갈 생각이 1도 없었음. 아무리 칸예빠라 해도 뚱쳐스 틀고 붕쯔붕쯔하는걸 굳이? (심지어 마스크 써서 유노마일스라고 해도 믿음 ㅋㅋ) 허나 친구가 같이 가자고… 내준다고… 몸만 와라고… 사정사정해서… 못 이기는 척 예매함. 부산에서 올라가는 고속터미널… 전날 과음 탓에 눈물을 머금고(진짜 가기 싫었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뎅 국물로 해장을 조지고 있었음. "게스트로 트래비스 스캇 오는거 아냐? ㅎㅎ"라는 소리가 들려 옆을 돌아보니, 나와 같은 칸순이들이 기대에 부푼채 스몰톡을 나누고 있었음. 호락호락하지 않은 패션에 직감함. 얘네도 공연 보러 가는구나… 대깨칸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나 포함) 생각함. 반가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버스에 탔는





온암

오 Magdalena Bay 신보! 우연의 일치네요 ㅋㅋㅋ
저도 그거 들으면서 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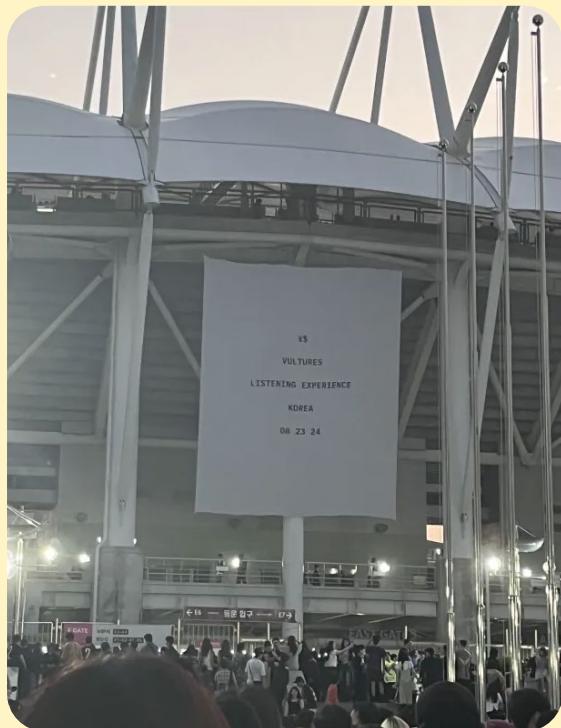
스룩산

저도요 ㅋㅋ



denim

7시 반 즈음 대화역에 도착했는데, 옷을 아예 안 입다 시피 한 사람부터 한겨울처럼 껴입은 사람까지, 가지 각색의 팬들이 길거리에 몰려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근처 편의점에서 물 하나도 못 살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짜증났지만, 공연장 갈 때나 귀 가할 때 카카오맵 쓸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해탈하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스타디움에 다다라서 벌처스 리스닝 파티 현수막이 눈앞에 보였을 때 처음으로 칸 예 보러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성인 인증 부스 줄을 보고 즉시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검문 다통과하고 3층으로 올라가서 좌석 찾으려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구역이 안 보여서 직원한테 물어봐, 2층으로 내려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RS석이었는데 중국 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람 때문인지 걸어 다녀서 그런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엄청 더웠는데, 그나마 양옆 자리가 비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온암

생생하네요... 저는 칸예가 한국에 내한할 수도 있다

는 루머를 들었을 때부터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기 만 했어요 ㅋㅋㅋ 일단 제가 칸예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칸예에 있다보니 그냥 칸예를 딱 한번이라도, 인생에 한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었다면 전 그걸로 충분했어요. 가끔씩 2010년 낙산 해수욕장에서의 전설적인 공연을 보며,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없는 빨간 정장을 입은 힙합의 신을 그리워하곤 하는데… 그런 칸예가 한국에서 리스닝 파티를 연다고 한다네요?? 고민할 것 없이 바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몸은 군대에 있지만 오직 칸예 한명을 위해서 신병위로휴가를 그때까지 계속해서 미뤘어요. 칸예의 내한이 확정되었을 때, 티케팅 일정이 나왔을 때, 티케팅에 성공했을 때, 칸예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순수한 환희를 느끼며 계속해서 고대했어요… 너무 신나 가지고 칸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니까요 ㅋㅋㅋ 다음으로 @ryuzimoto님과 @moogsick님은요?

☞ @온암



ryuzimoto

중학교 2학년, 몇 년 전인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우연히 누나의 mp3를 통해 칸예 웨스트의 “stronger”을 접했습니다. 당시 음악은 아이돌과 발라드만 있다고 생각한 저에게 그 첫 만남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는 항상 내 마음 속 최고의 아티스트이자 동시에 빛이었죠. 그런 칸예가 내한을 온다니… 물론 과거에도 왔었지만, 당시의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그의 돌발 행동 악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예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해야만 했어요. 단순히.. 저는 그의 얼굴만 봐도 좋았기에. 여튼 서울권인 제게 고양은 꽤나 멀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니깐.ㅠ 그래서 편하게 갈려고 회사에 연차도 냈습니다. 칸예라면 연차 따위 아깝지 않죠.

☞ @온암



moogsick

기대 반 걱정 반에서 90%의 걱정으로… 칸예가 비록 리스닝 파티일지언정 한국에 온다는 사실은 넘나 설레는 일이었으나, 마음 한켠에는 계속 “어차피 노래 틀어두고 춤추는 거 아님? 혹은 막판에 취소 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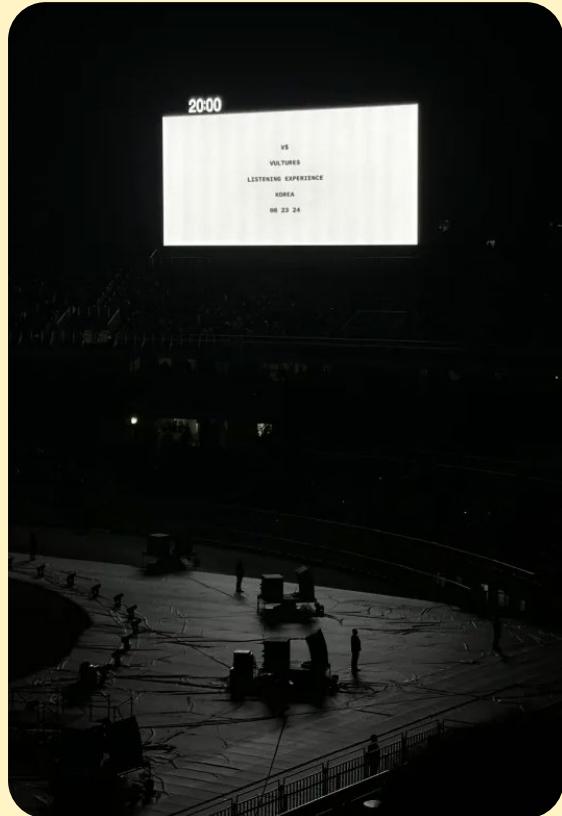
는 거 아님? 흠... 갈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뭐 어찌저찌 티켓팅까지 성공하긴 했지만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죠. 이런 제 불안에 쐐기를 박은 건 8월 초쯤 나온 칸예의 웃음가스 중독 폭로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칸봉이들이 봤을 그 끔찍한 사진을 접하고 나서 며칠 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속이 미숙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그만큼 칸예를 좋아했기 때문이겠죠? 무튼 이미 티켓은 수령했고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 입국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이 걱정은 계속됐는데, 다행히 금요일 한국 도착 후 소식이 다 좋아서 한결 마음을 놨었어요.

온암

그렇다면 공연을 기다리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칸예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설마 취소하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며 폰만 끄적였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또 데이터도 안되는 바람에 속을 엄청 썩였어요 ㅋㅋㅋ

SongChico

공연장 앞에서 만난 지인들과 농담으로 '과연 칸예 타임이 이길까, 빨리빨리의 코리안타임이 이길까?'에 대해 토론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칸예타임이 승리하여 1시간 이상 지체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날따라 빽치는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온암

트럼프 타임에 버금가는 칸예 타임... 역시 통하는 게 (?) 있네요 ㅋㅋㅋㅋ

스룩산

가히 칸천지를 방불케 하는 현장.. 전국 각지에서 선남선녀들,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듯 했음. 본인은 힙스터의 힙스터 마인드로... 정말 무난하게 갓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 맹키로 찐따모나미룩 입고 갔는데, 오히려 눈에 띄어서 기분이 좋았음. 처음 스터디움에 입장할 때, 펼쳐지는 광활한 시야.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처음 듬. 가슴 짜릿 웅장해짐. 위낙 지각은 패시브인 양반이라 넉넉하게 공연장에 9시쯤 도착할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연은 시작되지 않았음. 취소되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지나갔지만, 입장 게이트에 흑인으로 보이는 형태가 움직이기만 해도 환호성을 지르는 유쾌한 칸봉이들 덕분에 생각보다 시간 잘 감. 나중에서야 깨달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1시간 일찍 온거였음.

denim

우선 영상으로만 봐오던 모래사장을 직접 보고 처음엔 꽤 신기했어요. 허허벌판에도 이렇게 웅장함이 느껴지는데, <Donda> 리스닝 파티 때 집이 지어진 광경을 직관한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 떠올랐습니다. 맞은편 객석도 그렇고 비어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칸예가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계속 스터디움을 둘러보았습니다.



온암

정말 진짜요. 칸예라는 이름값치고 좌석이 꽤 비어있어서 칸예가 중간에 빠지진 않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denim

한 2시간은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이어폰 끼고 랜덤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돌리다가, 그래도 칸예 공연인데 관련된 곡은 들어야지 해서 "XTCY"를 틀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칸예 곡들이 흘러나오다 Pusha T의 "If You Know You Know"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꽂혀서 <DAYTONA>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안 터지는 탓에 30초에 한 번씩 끊겨서 엄청 화가 났다. 그 와중에 뒤에 있는 분들이 계속 "Yeezy"라고 호응을 유도하려 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서 욕하면서 뺏쯤해하셨다. 안 들리는 척하면서 몰래 듣고 웃었다. 자꾸 관중들이 '오오오'하길래 처음엔 '오, 뭐지?' 했는데, 한 6~7번째쯤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뉴진스 및 다른 연예인들을 보고 그런 거라 들음. 뉴진스를 못 본 게 평생 한으로 남을듯) 무대 앞에 배치된 시큐리티를 보고 덥겠다, 재미없겠다, 다리 아프겠다 생각했다. 전 광판 시계를 보면서 제발 지각은 하더라도 막차 시간에는 맞춰서 나왔다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온암

그러게요... 뉴진스 같은 연예인들도 가까이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쉽게도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는 바람에 눈 아무리 크게 뜯어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예인들의 연예인인 칸예를 직접 봤으니 이거 완전 럭키비기잔아 🌸🌸🌼

ryuzimoto

공연장에 도착을 하니 설레는 마음이 샘 솟았습니다. 같이 가기로 한 지인을 만나 우선 공연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흥분됐어요 ㅋㅋㅋㅋ 사실 굿즈를 사고 싶어서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허나 이미 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속으로 오히려 돈 아꼈다 하며 자위를 했지만, 조금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장을 다 둘러보고 지인과 같이 밥을 먹은 후 다시 한번 더 둘러보다가 기다리고 시간에 맞춰서 공연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해가 꺼져서 선선해진 날씨 덕에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moogsick

사실 칸예가 늦게 도착한 건 제겐 행운이기도 했는데, 공연 전 지인들과 저녁 겸 걸쳤던 반주가 좀 과했어서.. ㅋㅋㅋㅋ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불경했네요. 취기를 이겨내고 경기장에 앉아 있는데 역시나 안 나

오더라고요. 어차피 한 시간은 잡아야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꾸벅꾸벅 조니 그래도 금방 술이 깨구요. 8시 40분 정도가 넘어가니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이지!", "예!" 등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렇다고 칸예가 나올 리 없죠 ㅋㅋ 9시를 좀 넘겨서 아 이제 슬슬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데...? 할 즈음 톡 꺼지는 불과 함성소리. 정신이 확 드는 순간이었네요.

온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리스닝 파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전 그 정도의 대규모 콘서트에 처음 가보는 사람이라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설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SongChico

더운 공간에서 숨죽이며 기다린지 1시간 즈음 지났을까, 조명이 꺼지며 백마가 큰 아레나를 한바퀴 돌았고 관객들은 'YEEZY!'를 연호했죠,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칸예 웨스트와 타이 달라 싸인의 손엔 마이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신났습니다.



스룩산

드디어 칸예 등장. 그냥 내 앞에서 칸예가 움직이는 게 개신기했음. 역시나 얼굴 다 가리고 나와서... 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실감은 잘 안남.

denim

말이 등장했을 때 칸예가 아닌 건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무리 칸예가 신이어도 웬지 말을 못 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ㅋㅋ 그럼에도 정말 간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 도가 튼 사람이 스타라는 걸 실감했죠. 이후에 댄서들이랑 막춤을 출 때도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칸예의 첫 등장은 사실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전광판으로 봐야 했는데, 그냥 컴퓨터로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솔직히 이때까지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폭죽이 터질 때쯤이야 '아, 뭔가 시작하는구나'가 느껴졌고, 사람들의 폐창을 들으며 '와, 생각보다 칸예에 진심인 사람들이 한국에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ryuzimoto

뭔가 느낌상 지각을 하지 않고 제시간에 도착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산.. 그는 1시간 가량 지각을 했죠. 그리고 한번 입장하면 다시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더욱 더 초조해졌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러 갈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져버리고, 동시에 공연장의 불이 다 꺼지며 팬들의 Yeezy 폐창이 여러 번 반복되었죠. 물론 칸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던 순간, 광활한 모래벌판 위를 누비는 말을 타고 누군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이후 드디어 칸예 웨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첫 곡 "Stars"를 부르는 순간 뭔가 얹눌린 감정이 터지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아 지금을 위해 내가 칸예 웨스트의 팬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아지경으로 공연에 빠져 들었습니다!



온암

확실히 "Stars"가 오프닝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까요. 원래도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그 웅장한 사운드를 스타디움 단위로 들으니 정말 자렸읍니다..

스룩산

"Stars"를 오프너로 폭죽이 터지며 시작된 리스닝 파티. "Carnival"에서 다들 시전한 '한국떼창 맛좀 봐라 ㅋㅋ'는 그 효과가 굉장했음. 벌쳐스 최애 트랙 "BACK TO ME", 오기 전 집에서 '뷰티풀빅티티벳네 이킷우먼저스돈풀앤더스카이유노'를 한 스무 번 연습하고 왔는데, 다들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광기를 보여줘서 조금 무서웠음.



댄서 분들을 활용한 무대 연출도 흥미로웠는데, 칸예의 나 잡아봐라부터 관객석을 향한 달리기까지,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퍼포먼스 에너지가 굉장히 대목. 뱅어들이 하나 둘씩 나올 때는 나도 댄서 분들 사이에 끼어서 미친 듯이 흔들고 싶었음. 솔직히 귀여운 노스 웨스트 양과 시카고 웨스트 양의 퍼포먼스를 제외하면 … 벌쳐스 2의 트랙들은 그닥 이었음.



SongChico

거의 전곡을 따라부르는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EVERYBODY", "CARNIVAL", "FRIED" 는 그 이름값을 하는 뱅어였어요. 아 맞다! 노스양이 등장한 "BOMB" 역시 그 악명과는 달리 떼창이 제일 컸던게 기억에 남습니다.



denim

개인적으로는 <VULTURES> 1, 2 둘 다 복습을 안 해 와서 하나도 따라 부르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옆사람이 공연 전까지는 진짜 조용한 분이셨는데, 노래가 나오자마자 접신한 것처럼 자체 제작 안무를 쥐가면서까지 따라 부르길래 사실상 그분의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ㅋㅋ North와 Chicago 파트에서 사람들이 따라 불러줄 때 대리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태어났는데 아빠가 칸예라서 방학 숙제 할 나이에 리스닝 파티에 와서 공연 하면 무슨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엄청 능력 있다는 걸 여러 번 느꼈죠, 또. 특히 "530" 때, 후레시를 비춰주는 관객들을 배경으로 무릎 끓은 칸예를 언덕을 걸쳐 찍는 구도나, "Sky City" 때 마스크를 벗은 타이 달라 사인이 카메라에 반 걸쳐서 함께 워킹 하다가, 이후 보이는 칸예 원샷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칸예도, 관객도, 나도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서 집에 가고 싶었네요…



온암

아무리 대단한 공감각적 경험이라도 기본적으로 음악이 아주 좋은 건 아닌지라 좀 힘이 빠지셨나보네요… @ryuzimoto님께서는 <VULTURES> 리스닝 파티 중 기억에 남은 곡이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 @온암

ryuzimoto

<VULTURES> 1, 2의 모든 곡의 모든 순간이 최고였지만, 이번 리스닝 파티로 더 확 와닿은 곡이 있으니 바로 "Promotion"입니다. 칸예 웨스트를 지나 타달싸까지 서로가 티키타카 하는 식으로 주고받는 제스쳐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냥 '와 이보다 멋있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고 그 순간 칸예와 타달싸의 벌스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어요. 뭔

가 그들의 감정과 에너지가 너무 강렬하게 가슴에 꽂혔고 나도 모르게 그저 멍해졌어요. 아직도 그 순간의 영상을 돌려보곤 하는데,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Bomb"에서 모두가 다 같이 떼창하는 모습도 나를 웃음짓게 만들었고, 수많은 백댄서와 함께 러닝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Carnival"은 가장 신나는 장면이었지만, 그래도 내 가슴엔 "Promotion".



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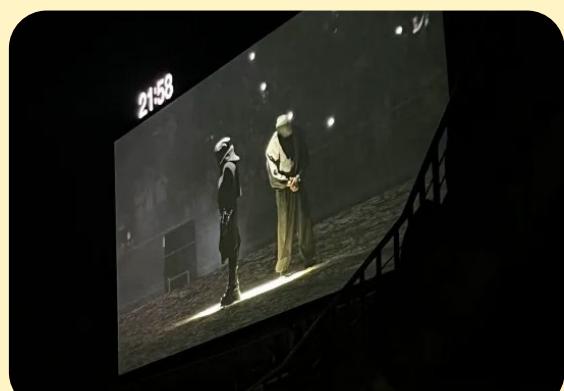
@moogsick님께서 리스닝 파티 재밌게 즐기셨나요?



● @온암

moogsick

안타깝게도 제가 앉은 자리는 전광판 바로 밑, 그러니까 리스닝 파티의 영상미를 보기 힘든 장소였어요. 그래서 안 터지는 데이터를 뚫고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 켜서 보고는 했는데 이건 지금도 쪼오오끔 아쉽네요 ㅋㅋ 그래도 수만 명의 칸천지들과 함께 큰 공연장에서 빵빵한 음향으로 들으니 <VULTURES 1>, <VULTURES 2> 곡들도 선녀가 되더라구요. 처음 백마를 타고 들어온 기수, "STARS" 후 폭죽, 댄서들과의 술래잡기(?), "BOMB" 떼창 등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기는 했어요. 리스닝 파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성적으로 변했는데 "RIVERS" 후반부에서 무릎을 끓은 칸예나 "530"의 플래시 세례, 그토록 좋아하던 구)미발매곡인 "SKY CITY" 등… 칸예는 고양종합경기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올려 놓고 퇴장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이게 끝이야?' 혹은 '진짜 라이브 하나?' 같은…





스룩산

그렇게 모든 벌쳐스의 트랙이 마무리되고 칸예 퇴장. 시원하게 뚱 잘 싸다 강제로 끊긴 기분. 에이 더 있겠지.. 몇 곡은 해주겠지ㅠㅠ 해도 안 나오길래 진짜 이대로 끝인가 싶었음.

동시에 "Runaway" 건반으로 장난질을 한 5-6번 쳤는데, 진짜 이때 진지하게 조금 화났음(…)

온암

저는 워낙 칸예에 뇌가 절어서 그랬는지 건반 소리만 들려도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와아ㅏㅏ앙~" 소리 질렀네요 ㅋㅋㅋ 그렇다면 이번 한국 리스닝 파티의 화룡점정이었던 칸예 킬링벌스, 칸예 히트곡 메들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ㅋㅋㅋ 전 지금도 그때의 전율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SongChico

<VULTURES>의 리스닝 파티가 끝나고 무대 뒷편으로 사라진 칸예 웨스트를 향해 목이 터져라 'YEEZY!'를 외친 탓일까요? 칸예 웨스트는 환복을 마친 채 마스크를 벗고 등장했고,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마이크가 들려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때의 도파민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moogsick

그리고 신께서 나오셨습니다.. 어느새 편한 후디 셋업으로 갈아입고 마이크를 한 손에쥔 채 의기양양하게 걸어나오는 칸예를 보면서도 '설마 라이브 하겠어?'란 생각이 줄곧 맘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마이크를쥔 손을 높게 치켜들더니 "All Falls Down"이 흘러나오는 순간이란... 다들 상상만 했던 광경이 눈 앞에 펼쳐졌죠. 1집부터 사람

들에게 사랑받은 많은 곡들을 쭉 훑는데 계속 어안이벙벙했어요. "Through The Wire"을 듣고 나서는 '아, 이거다. 칸예 오늘 완전 날 잡았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구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신을 놓고 소름돋은 채 즐겼죠 ㅋㅋㅋㅋ



스룩산

흰색 옷으로 환복하고, 마스크까지 벗었을 때 1차 충격. 그제서야 제가 칸예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게 실감이 됐음. 근데 ㅋㅋ 마이크 뭐임? 2차 충격. 어리둥절 해있을 찰나, 바로 "All Falls Down" 광역기 시전. 3차 충격. 설마설마 했는데 디스코그래피 순으로 킬링벌스를 찍고 있는거임. 그 이후론 무아지경 상태라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음. <The Life Of Pablo>로 입문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칸예의 음악과 함께 자라온 본인의 과거가 스쳐지나가는 경험, 굉장했음.



denim

우선 전 칸예가 얼마 동안 라이브를 안 했고, 예전 곡메들리를 한 적이 없다는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드티를 입고 재등장해서 마이크를 손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왜 환호하는지 몇 초 지나서야 알고 뒤늦게 '아, 마이크구나' 했어요. 그러나 "All Falls Down" 반주를 듣고 좋은 의미로 욕함 ㅋㅋㅋ 칸예식 드랍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Stronger", "On Sight", "Blood On The Leaves", "Feel the Love" 때의 텐션이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흔들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너무 신나서 그런지 쪽팔리지도 않았어요 ㅋㅎㅎ 아마 주변 분들도 즐기느라 신경도 안 쓰셨을 듯하네요. 번외로 "Moon" 때 노스와 칸예가 포옹하는 순간에 2초 정도 징함.





ryuzimoto

공연 전부터 저는 솔직히 원가 라이브를 할 것만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꿈만 같다는 생각보다 '그 누구보다 미친듯이 놀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곡인 "All Falls Down" 시작으로 마이크를 잡은 칸예를 보니 그가 알을 깨고 나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Touch the Sky"가 나왔을 때, 저는 미쳤어 ㅋ.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였기에 너무 행복했고, 말 그대로 Touch the Sky를 하고 싶어 그 누구보다 하늘 높이 점프했습니다. 저는 분명 하늘을 터치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누군가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때 저는 미쳤어요. 어찌겠어! 내가 그렇다는데 ㅎㅎ... ㅋ. 그리고 이어지는 메들리 "Good Life", "Can't Tell Me Nothing", 칸예에 입문하게 된 "Stronger". 그 외 모든 곡들이 정말 저의 추억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문득 저 스스로 진성 올드 칸예팬이라 생각이 든 게 하나도 모르는 노래없이 정말 즐겁게 뛰고 춤추고 소리 질렀습니다.

온암

아무 곡이나 들어도 죄다 떼창 가능한 히트곡인 게 새삼 칸예의 위엄이 체감되네요 ㅋㅋㅋ

SongChico

첫 곡 "All Falls Down", 그 뒤엔 "Jesus Walks"와 "Through The Wire", 이내 "Hey Mama"를 재생한 순간, 공연이 어느 순서로 진행되는지 깨달았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난데없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칸예 웨스트 메들리'에 온 객석은 정신줄을 놓고 칸예 웨스트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드레이크 샤라웃의 'I Wonder', 'Fxck Adidas!' 떼창의 'Can't Tell Me Nothing'을 지나 마침내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의 순서가 돌아왔고, 관중들은 무대를 즐기는 동시에 '그 곡'을 조금은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Cut it!'을 외치는 칸예 웨스트의 지휘 아래에 한곡, 한곡 씩 지나갔고 '높은 미'가 큰 경기장을 울립니다. 몇번씩이나 '높은 미' 낚시에 당했던 관중들은 현실을 믿지 못했고 한 음, 한 음, 차례로 등장하자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순간을 만끽했으며 주변엔 울먹거리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칸예 웨스트도 이 곡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Runaway"를 온전히 양도했고

그리고 떼창... 그 떼창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뿌듯합니다. 이후 쭈욱 이어진 메들리는 <Donda>에 달자 멈추었고 폭풍같던 54곡의 행진이 종료되었습니다.



온암

전 이번 리스닝 파티를 기점으로 <Donda>를 꽤나 재평가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아주 좋아하던 앨범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곳에서 들으니 그 특유의 공간감과 몽환적인 톤에서 오는 웅장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SongChico

그 행진 동안 정말 오만가지 감정이 저를 스쳐지나갔는데요... 올드칸예 메들리는 올해들어 가장 큰 도파민을 선사했고 "Bound 2"의 코러스를 아카펠라로 떼창하던 순간과 "Moon"에서 노스와 칸예 웨스트가 상봉하던 순간은 눈물을 찔끔 흘리게 했으며 "Fade"에서의 타이 달라 싸인의 음색과 "Clique", "Mercy", "All Day" 등 정규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곡들도 선보인 것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온암

맞아요 ㅋㅋㅋ 해봐야 정규 디스코그래피 정주행일 줄 알았는데 싱글까지도 해준 게 정말 혜자, 아니 '혜자'였던까요 ㅋㅋㅋ 다른 분들께선 어떤 곡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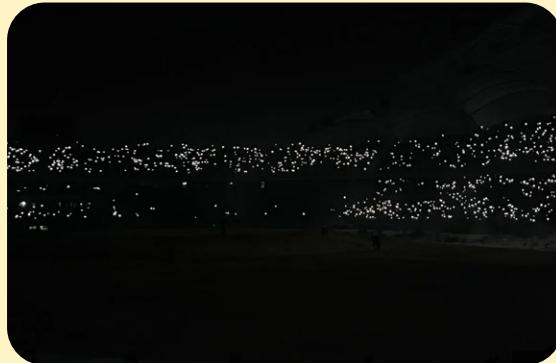
스룩산

하필 공연 당일, 1년 전부터 고대하던 면접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라... 멘헤라 직전 상태였음. 그런 와

중 개인적으로 군대 시절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Ghost Town"이 플레이됨. 070 Shake 파트가 나올 때 다함께 따라 불렀는데… 진심으로 울컥함. 또 개인적으로 <KIDS SEE GHOST>를 칸예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라이브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음. 야가가각 거릴 때 춤추던 칸예가 너무 귀여웠음 ㅎㅎ 심지어 한번 미끄러질 뻔한게 웃음벨 ㅋㅋㅋ

온암

그러니까요 ㅋㅋㅋ 칸예 본인도 정말 재밌게 노는 게 보이더라고요



스룩산

아, 지-니어스 다큐멘터리에서 칸예와 키드 커디가 "Father Stretch My Hands, Pt. 1"에 흥겹게 쉐이크를 하던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라이브에서도 If young metro don't trust you, I'm gon' shoot you 태그가 흘러나온 뒤, 주변 사람들과 섞여서 뛰어놀던 모멘트가 기억에 남음.

온암

그렇다면 예상치 못했는데 은근히 좋았던 곡 있을까요?

스룩산

"Only One"! 설마 이것까지 라이브로 들을 줄 몰랐음(사실 존재 자체를 깨먹은 노래). 다들 휴대폰 후레쉬 켜서 고양의 밤을 수놓는데… 그 광경이 위아더원을 방불케 하는 것 같아 많이 짹해졌음.

denim

저는 역시나 모든 순간의 시작인 "All Falls Down". 칸예 1집을 거의 안 들어서 노래 자체는 평소에도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음에도 공연장에서 접하니 그 감

흥이 달랐습니다.

온암

@ryuzimoto님은 어떤 곡이 제일 좋으셨나요? 아무래도 또 현장에서 엄청 신나게 즐기셨는데 ㅋㅋㅋ

• @온암

ryuzimoto

앞서 말한 "Touch The Sky"를 포함 "Monster", "POWER", 이렇게 3개의 트랙을 라이브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니… 아직도 꿈만 같네요. 올해 최고의 순간이었고, 가장 제 감정이 격하게 터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은 "Diamond From Sierra Leone"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이지를 포함 과거 략 패밀리들을 샷아웃하는게.. 물론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잘 듣지를 못했지만, 공연 후 영상을 보면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사실 가장 기대한 트랙은 "Gold Digger"와 "Good Life"였지만, 뭔가 팍 올라오기 전에 벌스가 끝나서 조금 아쉬웠다는…



온암

아 맞아요, 칸예가 한국 관객들에게 라카펠라 사인을 요구할 때 너무 힙합뽕이 찬 나머지 전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바로 락사인을 올렸더랬죠…ㅋㅋ

moogsick

저도 비슷하네요. "Touch The Sky"를 목 놓아 따라

부르고 "Diamonds From Sierra Leone"에서 라커펠라 핸드사인을 날린 2집, "I Wonder"와 "Good Life"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중간 "FUCK ADIDAS" 떼창한 3집부터 아쉽게도 단 한 곡만 있었던 4집까지. 제가 사랑했던 그 칸예의 디스코그래피를 쭉 훑어나가는 기분, 또 역사의 순간에 있다는 실감에 계속 몸이 떨렸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름돋았던 건 역시 5집-6집-7집 3연타겠죠? 가장 좋아하는 시기인 만큼 쭉 꿈만 같았네요. "All Of The Lights"에서 관객석의 플래시가 짹 커지는 광경, 완곡을 안 해줘서 조오금 아쉬웠던 "Runaway", 전설적인 움짤을 남긴 "On Sight", 칸예의 조련 하에 흙을 합창한 "Bound 2", 가장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던 "Father Stretch My Hands, Pt. 1", '그 가사'를 떼창한 "Famous"에... 다 말하려면 입이 너무 아픈 순간들이에요. 이후 8-10집 라인에서는 칸예의 이모셔널한 곡 중 제일 좋아하는 둘이 "Ghost Town", "Come To Life"까지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줄곧 메들리로 듣고 있으면서도 이 곡들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뭉클한 "24" 엔딩까지 정말 경이롭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 ㅠㅠ

온암

다시 생각해도 "24"로 끝내는 엔딩은 정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선 예상치 못했는데 좋았던 곡 있으셨나요??



ryuzimoto

제 경우에 예상치 못했는데 좋았던 곡은 무조건 "I Wonder"…! 무엇보다 이 곡을 라이브 할 때 칸예가

씨익 웃으면서 빛나는 티타늄 그릴즈를 보여줬는데, 그때의 눈빛은 무언가 '짜잔~ 내가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걸 눈앞에서 목격하니 '아, 내가 알고 있는 칸예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라고 순간 다시금 머리가 떽해졌어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눈빛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아니라도 괜찮아…나는 이미 봤으니깐!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moogsick

<Watch The Throne>, <Crue Summer> 그리고 <KIDS SEE GHOSTS>까지 합작 앨범을 쟁겨 주었다는 사실이 가장 예상치 못하면서도 좋았어요. 특히 Roc-A-Fella, GOOD Music, Kid Cudi, Pusha T, 070 Shake 등 동료를 계속해서 샤라웃해주는 칸예의 모습에서 지금 많은 이들과 대립각을 세운 그가 아닌 전성기 칸예의 편린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Run This Town", "Only One", "FourFiveSeconds"는 정말 아예 예상하지 못한 곡이라 같이 간 지인과 "아니 진짜 이것까지 해주네?" 하며 계속 놀랐었어요 ㅋㅋㅋㅋ

온암

정말 매 순간이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연이 깔끔하게 끝나고 흥분에 가득 찬 채로 경기장을 나왔는데... 그냥 모든 곡을 다 퍼줘서 앵콜을 외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ㅋㅋㅋ 그냥 다! 해줬잖아! ㅋㅋㅋㅋㅋㅋ 1집부터 10집이랑 합작부터 컴필이랑 솔로까지 다 해줬잖아 ㅋㅋㅋ

SongChico

공연장에서 나와서는 "저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 까지 할까?" 하는 고마움도 느꼈어요. 1시간이 지체되고, 1시간을 추가로 공연하여 지인들을 서울까지 태워다 주야 하는 수고를 겪기도 했지만 그게 대수인가요, 저는 칸예 웨스트를 영접한 행복한 신도인걸요.

스룩산

"24"의 'we gonna be okay'를 연호하는 것으로 공연이 마무리 되고, 사람들과 "Carnival"을 떼창하며 고양종합운동장을 빠져나올 때 … 앞으로 무조건갓생을 살 것이라 결의함(이번엔 진짜임).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라이브를 살

면서 직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Playboi Carti 아니면 이제 제 인생에 라이브는 없다 ㅋㅋ 라고 다짐. 같이 가자고 끝까지 삼고초려해주고 심지어 티켓값도 내준 친구에게 미친듯이 도게자 박음.



denim

복에 겨웠는지 칸예가 퇴장하자마자 아쉬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설마 앵콜이라도 하나 해주나 했는데, 퇴장 안내 방송을 듣고 현실로 귀환했어요. 막차 잡으려고 후유증이고 뭐고 엄청 뛰었습니다 ㅋㅋ 공연에 대한 극찬은 이미 많이들 하셨을 테니,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던 부분을 얘기하자면, 메들리 형식이라 풀로 듣고 싶었던 곡들, 혹은 라이브로 보고 싶었던 킬링파트들을 못 들었던 게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I Wonder" 3절, "Runaway" 후반, "Ghost Town" 인트로 등등. 4집에서 "Heartless" 한 곡밖에 안 한 것도 그렇고, 7집과 <KIDS SEE GHOSTS>를 가장 좋아하는 팬으로서 시간 상곡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네요. 물론 다음 날 유튜브 라이브를 돌려보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벅차올랐습니다 ㅋㅋㅋ

ryuzimoto

우선 돈, 시간, 에너지 모든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한 아티스트 때문에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팬들이 아마 이 공연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네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ㅎ 그리고 공연 후 단체로 "Carnival"을 떼창 했는데… 거기다 공연장도 종합운동장인데… 그걸 듣고 누가 안 돌아버리겠나? 공연을 보러 온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런 멋진 단합을 보여줘서..

moogsick

칸예는 칸예다. 도대체 무엇이 고양에서 2시간 남짓한 공연 동안 그를 과거로 되돌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제가 사랑했던 칸예의 재현을 목도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얼떨떨하고 신기해요. 물론 위에 썼듯 조금씩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려면 다시 한국 와야겠지 Ye?????

온암

그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을 걷어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잠깐 이거 가성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지 않았나? 나 방금 전설을 목도한 게 아닌가? 내가 저기 있었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짹 돋더라고요 어후 ㅋㅋㅋ 인터넷 커뮤들 들어가보니까 단체로 반응은 폭발적이고 리스닝 파티라고 못 가신 분들은 그냥 현실에서 오열하고 있고 ㅋㅋㅋ "이건 리스닝파티가 아니잖아 이건 XXXXXXXXX(대충 야한 말)파티잖아"라는 반응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ㅋㅋㅋ 그냥… 제 인생 최고의 밤이었다고는 기억나지 않아요. 회식이고 클럽이고 여자 인스타 따는 거고 뭐고 그냥 하고 싶었던 것들 짹 사라지고 오직 칸예수님만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칸-멘.

ryuzimoto

ㅋㅋ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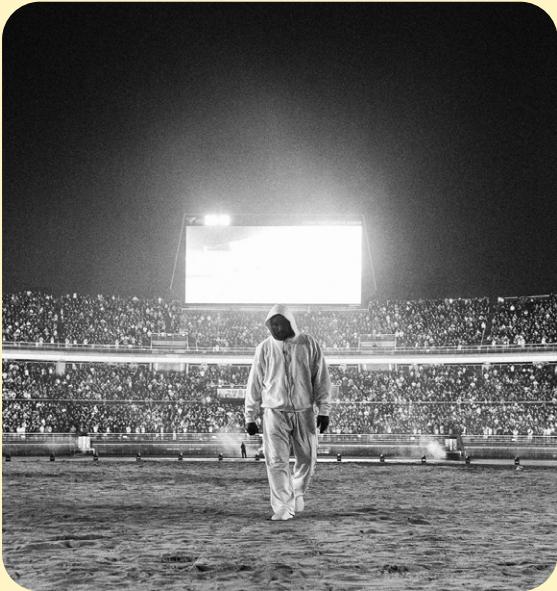
SongChico

ㅋㅋㅋㅋ

온암

이렇게 엄청났던 칸예의 내한! 해외에서도 꽤나 화제

가 된 만큼이나 향후 칸예에 있어 특정한 분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공연 후 칸예
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향후 칸예에게 바라는 행보
가 있을까요?



관, 쥬씨 다시 먹어야지 ㅎㅎ

온암

전 공연 끝나고 당분간은 칸예가 한국 활보하며 온갖
썰을 다 남기는 거 보고, 그리고 그런 칸예의 행보에
온갖 드립을 치는 인터넷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칸뽕
과 국뽕을 동시에 채웠던 것 같네요… 그냥 칸예 덕
분에 살 힘이 났어요 ㅋㅋ 첫 휴가라 날이 지나면 지
날수록 점점 무기력해질 것만 같았는데, 칸예가 정말
큰 선물을 남기고 가줘서 그런지 매일매일이 즐겁기
만 했네요. 이번 공연에서 느낀 감정을 다음 솔로 앨
범에서 표현한다는 얘기도 있고… 10월에 더 큰 이
벤트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칸예가 사상과 정
치의 수령에서 벗어나 순수한 예술적 열의를 되찾았
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리고 "I Wonder"와 "Run-
away"를 연호하는 관객들을 보며 눈을 밝혔던 칸예
의 총기를 떠올려보면, 아마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칸예가 이번의 경험을 터닝 포인트로 잡고
음악적으로 재기한다면, 그것만큼이나 아티스트로
서 더 신화적인 서사는 없겠네요… 여러분 오늘 후기
나눈 것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또 만
나요~



SongChico

이 공연을 직접 몸으로 보고 느끼고 나서는 1달, 1년,
10년을 먹고 살 추억을 예상치 못하게 선물받은 느낌
입니다! 칸예 웨스트, 이지, 크리스찬 빌리어네어 예,
이저스, 노스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스룩산

한국 오지마 이제 ㅎㅎ



denim

항상 건강해야 한다 칸예야. 타이달라는 솔로 곡이나
잘 좀 뽑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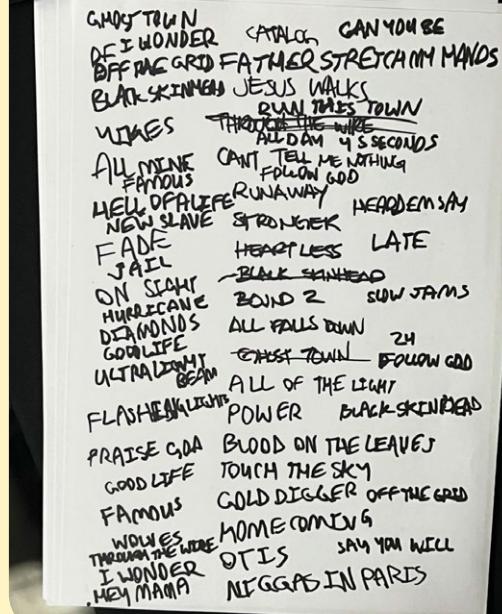
ryuzimoto

칸예야.. 아니 예야.. 다음에는 벌스 짧게 말고 풀로
한번 다시 내한해라. 그때는 VIP석으로 갈게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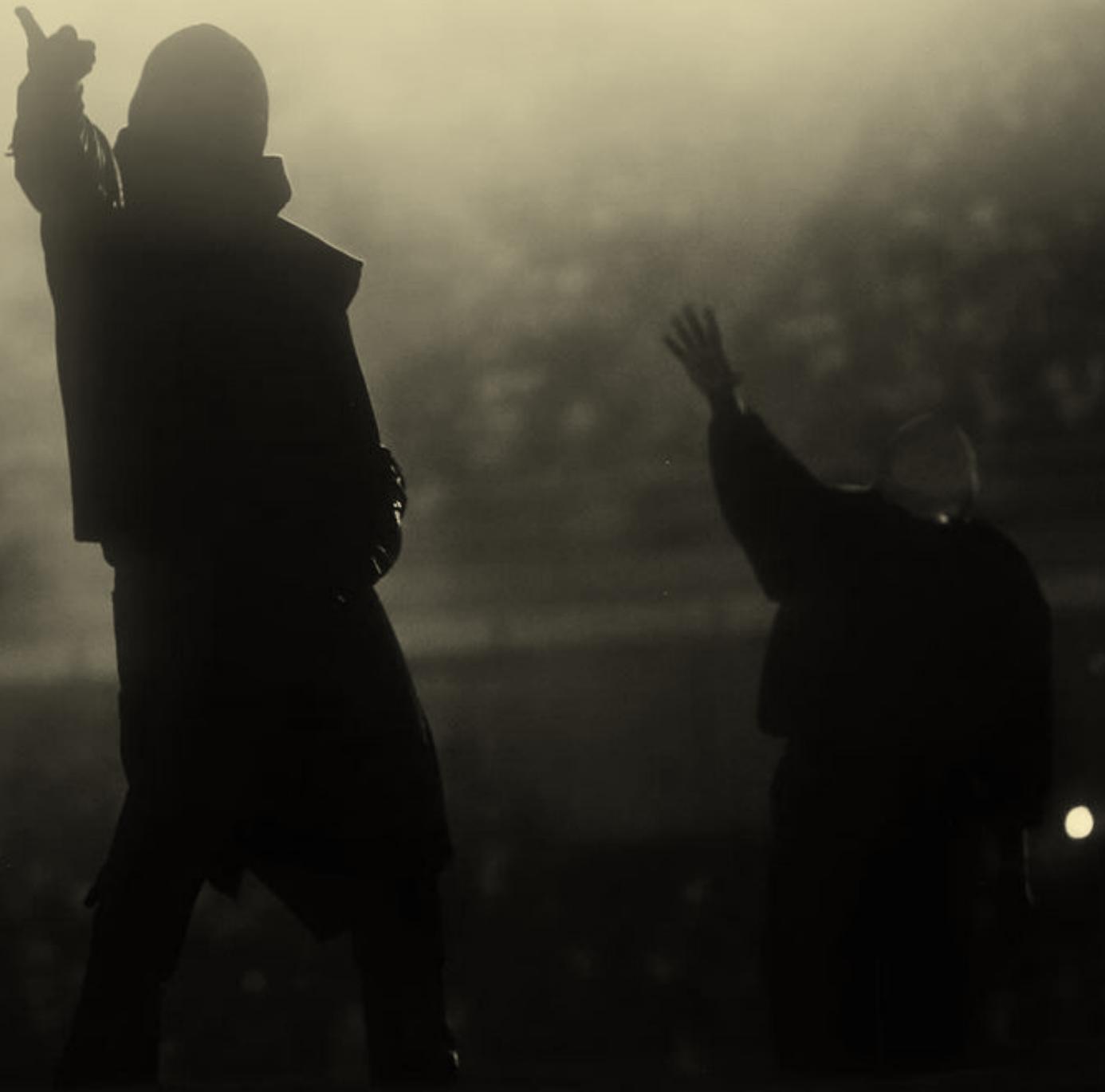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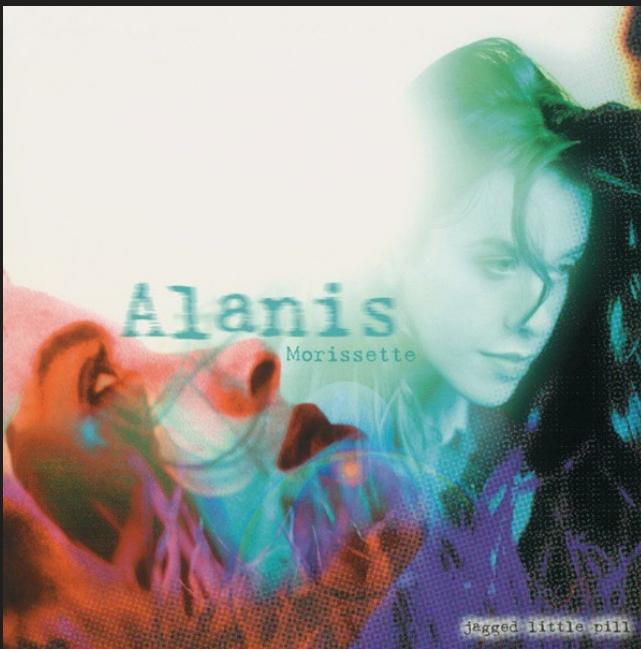
moogsick

이번 일을 계기로 짠- 하며 예전의 칸예로 돌아오리
라는 소망은 솔직히 많이 이상적이고, 조금씩 건강해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분명 지
난 고양의 밤은 근 몇 년 간의 칸예 중에서도 가장 총
명하고 또렷했으니까요. 사실 이미 작업물 관련해서
는 기대를 좀 놓은 상태지만 그래도 <VULTURES 3>
때 한국 한번 들러 주면 좋겠어요. 스타벅스, 도산회



Editor's Pick





Jagged Little Pill
Alanis Morissette
1995.06.13

1. All I Really Want / 2. You Oughta Know / 3. Perfect / 4. Hand In My Pocket / 5. Right Through You / 6. Forgiven / 7. You Learn / 8. Head Over Feet / 9. Mary Jane / 10. Ironic / 11. Not The Doctor / 12. Wake Up

비평가 Bob Stanley의 저서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다. "Madonna는 앨라니스 모리셋(Alanis Morissette)에게 자신의 여성 권력을 이양했다." <Erotica> 시절의 파격을 통한 페미니즘적 전복이 실패로 끝나고, 대신 유능한 후배의 서포트를 택한 양상을 보며, <Jagged Little Pill>이 끝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 터. 그러나 Bob의 해석 중 일부는 본작의 진정한 성취를 곡해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번 픽은 항변을 위한 것임을 감히 밝힌다. a) 안티들은 록커로서 그녀의 급전환이 가장 'Ironic'한 순간이라고 조롱했지만, 정작 그녀의 변신은 라이엇 걸 힙합의 합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 감정과 정체성을 깨닫고 싱어송라이터가 돼야만 했을 뿐이다. b) 지금도 여러 평론지에서는 그녀의 분노가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듯 선전하기 바쁘지만, 'Perfection'에서 자식에게 가하는 윗 세대의 강요는 성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한다. c) 'Right Through You'에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남성중심의 산업도 꼬집기는 하나, 작품의 테마는 인간사의 모든 억압을 관통한다. 비평가 뿐만 아니라 팬들을 포함해 작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초래한 모두에게 고한다. 자, 그녀의 변신이 여성 권력을 위한 것이라고? 천만에! 짓눌릴수록 강한 힘을 간직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존재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것임을! 새롭게 들을 여러분들이 재차 판단해 주길 바란다.

by 감상주의



Cyberpunk 2077: Radio, Vol. 2 (Original Soundtrack)
Various Artists
2020.12.18

1. PonPon Shit - Namakopuri & Us Cracks / 2. Delicate Weapon - Grimes & Lizzy Wizzy / 3. Who's Ready for Tomorrow - RAT BOY & IBDY / 4. Major Crimes - HEALTH & Window Weather / 5. I Really Want to Stay At Your House - Rosa Walton & Hallie Coggins / 6. Surprise Me, I'm Surprised Today - Nina Kraviz & Bara Nova / 7. Hole In the Sun (feat. COS & Conway) - Raney Shockne & Point Break Candy / 8. History - Gazelle Twin & Trash Generation / 9. On My Way to Hell - POŁOZ & Tin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가져다주는 매력은 독보적이다. 특이점을 넘어간 기술 발전에 의해 생겨난 극단적 빈부격차,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인 범죄가 전달하는 광기와 선정성, 어두운 뒷골목과 빛나는 네온사인,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감정의 낭만.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을 살려냈다고 평가받는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이 모든 매력을 단 10개의 에피소드에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이 여운을 이어가주는 가장 큰 요소는 다름 아닌 주인공들의 서사와 우연히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운드트랙, "I Really Want to Stay At Your House"이다. 부서지는 전자음 속 아련함,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 하나의 꿈. 이 노래가 재생되는 우리의 헤드폰 속,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한 방식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어갈길 바라게 된다. 또한, Grimes와 HEALTH, Nina Kraviz 등 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한 수록곡들 또한 나이트 시티의 정취를 불러오는 데 최적이다. 우리들의 나이트 시티 속 이 앨범을 배경으로 달에 도달할 수 있기를.

by BlackMatter



Exit6
Aizeks
2024.02.23

1. Equals / 2. Likes / 3. Like It or Not / 4. Nu / 5. Blackout Drunk / 6. Suicide Note

2010년대 중반, 플러그라는 아버지의 밑에서 탄생한 플럭앤비는 2020년대에 들어 레이지의 발전, 플러그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틱톡을 만나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을 맞게 되었다. 플럭앤비가 이리저리 구르며 온갖 곡들을 'PluggnB Mix'로 재탄생시키던 상황에서 프로듀서들은 이 장르 특유의 몽환적인 신스가 트랩에만 사용되기엔 너무 멎지다는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discoplug', 'PluggnB Hou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플럭앤비의 변신은 그렇게 탄생했다. Aizeks는 본디 주크와 풋워크를 주장으로 삼았던 프로듀서지만 최근엔 플럭앤비에서 등장할 법한 신스를 노골적으로 차용했고, 플러그를 만들던 래퍼들과 합작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본작은 두 장르의 밸런스가 잘 들어맞는 훌륭한 예시이다. 때로는 플럭앤비가 전면에 나오기도, 때로는 신스가 뒤로 물러나며 하드 트랜스, 주크의 과격한 드럼 사운드가 귀를 타격한다.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한 Aizeks의 큐레이션은 그가 가진 강력한 무기 중 하나처럼 느껴졌다.

by SongChico



Guess featuring Billie Eilish
Charli xcx & Billie Eilish
2024.08.01

1. Guess featuring Billie Eilish

2024년을 강타한 퀸 둘이 뭉쳤다. 찰리 XCX(Charli xcx)와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 각각 <BRAT>과 <HIT ME HARD AND SOFT>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말 그대로 2024년을 정복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뭉친 둘은 올해 최고의 광적인 댄스 팝 뱅어 트랙을 만들어냈다. 지진처럼 마구 흔들리는 전자음, 밀레니얼 세대 Electrocrash 음악의 클리셰를 굳이 피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래적인 트랙이다. 빌리 아일리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항상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오던 그녀는 이번엔 자신의 퀴어적인 면모를 주저하지 않고,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당당히 표면적으로 드러낸다. 빌리의 'Charli likes boys but she knows I'd hit it'라는 가사는 단연코 올해 최고의 구절 중 하나이다. "Guess featuring Billie Eilish"에서 찰리와 빌리는 또 한 번 2분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폭발적이게 자신들의 야성적이고 화려한 매력을 뿐내었다. BRAT Summer여, 영원하라!

by 자카



Flight b741

King Gizzard & The Lizard Wizard
2024.08.09

1. Mirage City / 2. Antarctica / 3. Raw Feel / 4. Field of Vision / 5. Hog Calling Contest / 6. Le Risque / 7. Flight b741 / 8. Sad Pilot / 9. Rats In The Sky / 10. Daily Blues

2022년에만 무려 5개의 정규 음반을 뽑아내며 특유의 앨범 생산량을 과시하던 이들이었지만, 금년에는 8월이 되어서야 첫 정규를 발매했다. 이들 치고는 무척 어색한 노릇. 신스팝(Synthpop) 요소를 가미한 바로 전작이나 메탈(Metal)을 표방한 이전작이 평단과 리스너들에게 호불호가 갈렸다면, <Flight b741>은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이지리스닝 앨범이다. 요즘 떠오르는 듀오 The Lemon Twigs와 같이 과거의 한 장르를 집요하게 파내 그들의 온전한 것으로 만드는 대신, 여전히 즐기는 자 모드로 가볍게 임하는 이들이 다소 쾌심하긴 하지만 —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시타를 때려낸다. 지루한 지점이 분명 존재하는 작품이지만 그렇다고 루즈하다고 단정 짓기엔 곤란하다. 에너지 기조를 붙들고 있는 — 일명, 보이지 않는 줄이 꽤나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 이미 정평이 난 멤버들의 기타 퍼포먼스와 리프 연주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킹 기저드 & 더 리저드 위저드(King Gizzard & The Lizard Wizard)의 매력은 완벽하게 제작된 어떠한 집합체보다는 조금의 금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늘 있는 하나의 제품을 매번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일 텐데, 본작은 근몇 년간 가장 순수하게 느껴진 이들의 프로젝트이자 흥겨움으로 무장한 진통 블루스(Blues)다.

by 스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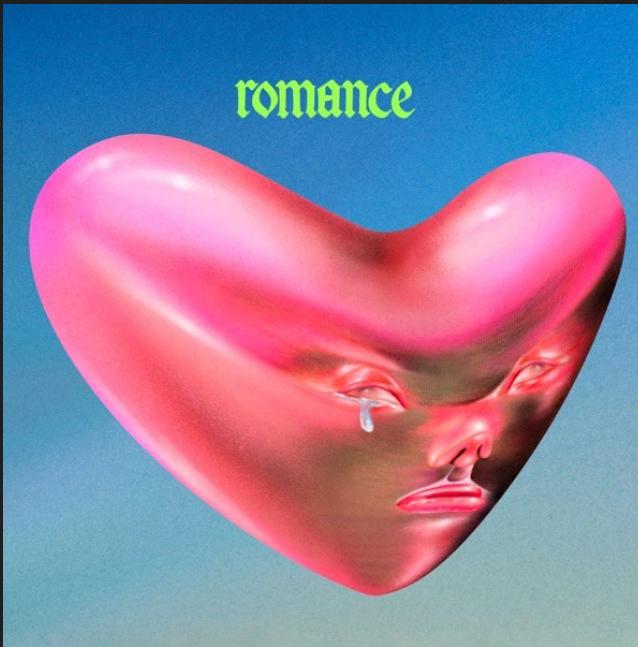
NEW WOMAN LISA FEAT. ROSALÍA

LISA
2024.08.15

1. New Woman (feat. ROSALÍA)

단순히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비교했을 때도, 리사(LISA)의 화제성은 BLACKPINK의 타 멤버들에 비해서 독보적이다. 그녀의 성공은 두 국가로부터 지지받고 있고, 그녀 본연의 재능 또한 결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다방면에서 넘치도록 충만하다. 허나 그 재능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발현되었던 이전 싱글들과 달리,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재탄생을 노래하는 "NEW WOMAN"은 "ROCKSTAR"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처럼 들리게 할 정도로 우수하다. 거장 Max Martin이 일렉트로팝과 힙합을 적절히 융합한 리사의 무대는 YG의 가장 촌스러운 부분만을 모았던 과거의 것들과 비교선상을 달리한다. 물론 화룡점정은 로살리아(ROSALÍA)의 등장이다. 평소 리사와의 친분이 그녀의 주된 참여 이유겠지만, 로살리아는 곡의 테마인 'New Woman'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음악과 가사 양면에서 스페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로살리아의 커리어는 '라리사 마노반'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는 리사의 행보와 완벽히 부합한다. 강력한 협력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권이 리사의 손에 쥐어짐은 물론 그 시너지 효과가 가공하다는 점에서 "NEW WOMAN"은 솔로 아티스트 리사의 진보로서도, 콜라보로서도 견고한 완성도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거시적으로 관측했을 때, 그녀가 메인스트림 팝 시장에 대한 도전자를 자처한다는 사실은 극명해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정확히 어떤 형태의 팝스타가 되고 싶은지, 답은 "NEW WOMAN"과 Dave Meyers의 감각적인 몽타주에 있다.

by 은암



Romance

Fontaines D.C.

2024.08.23

1. Romance / 2. Starburster / 3. Here's the Thing / 4. Desire / 5. In the Modern World / 6. Bug / 7. Motorcycle Boy / 8. Sundowner / 9. Horseness Is the Whatness / 10. Death Kink / 11. Favourite

폰테인즈 D.C.(Fontaines D.C.)는 20년대 이후 급부상하는 영연방의 밴드를 논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밴드이다. 인트로 “Romance”부터 밴드의 전신(前身)이 되는 어둠 속으로(‘Into the darkness again’) 빠져들겠다 미리 선언하며, 이들의 네 번째 정규 <Romance>는 으스스하게 시작한다. 몽환과 불안을 동시에 간직한 고백, 프린트맨 그赖언 채턴(Grian Chatten)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들바들 흔들린다. “Here's the Thing”에서의 앙상한 헐떡임과 가성은 되려 유혹의 의도가 묻어나지 않아, 더 육 축축하고 로맨틱하다. 이러한 질척거림은 바로 다음 트랙에서 “Desire”에서 더욱 심화된다. <Romance>에서 두드러진 가장 큰 변화는 한결 메이저스러우면서도 고유한 미학을 구축하는데 반절 성공했다는 것이다. 전작들에 비해 그리 흥미로운 작품은 아니지만, 감정이 추가되어 개성적인 면이 훨씬 도드라진 보컬과 사운드의 진보는 참 매력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다소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지만, <Romance>는 그나마 대중친화적이면서도 어두운 면이 솔직하고 조금은 유치하게 겉혀졌기에 — 최선의 입문 루트가 될 수 있다. 그赖언 채턴은 이미 타락한지 오래, 이제는 마니아틱했던 속성을 벗어던지고 힙스터들의 밴드로 거듭날 이들의 그릇된 야망이 어디까지 뻗쳐나갈까.

by 스록산



Imaginal Disk

Magdalena Bay

202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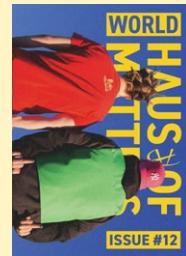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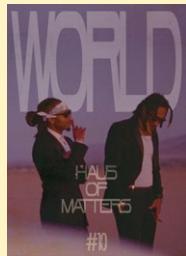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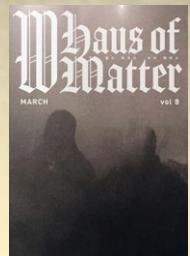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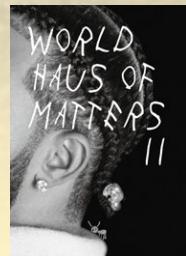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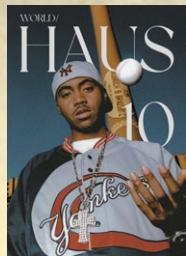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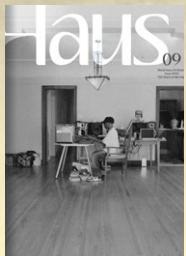
1. She Looked Like Me! / 2. Killing Time / 3. True Blue Interlude / 4. Image / 5. Death & Romance / 6. Fear, Sex / 7. Vamppire in the Corner / 8. Watching T.V. / 9. Tunnel Vision / 10. Love Is Everywhere / 11. Feeling Diskinserted? / 12. That's My Floor / 13. Cry for Me / 14. Angel on a Satellite / 15. The Ballad of Matt & Mica

<Mercurial World>가 복고 시절의 사운드들을 재조합하여 완전한 이들만의 특출난 재료를 만들어냈다면, <Imaginal Disk>는 이 밴드의 잠재력을 가늠하는 동시에 — 전작에서 선보였던 테크닉이 고작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는 것을 추측게 하는, 막달레나 베이(Magdalena Bay)의 새로운 존재 의의를 창출해낸 다른 의미로 두려운 앨범이다. 53분이라는 넓은 영역에서 기량을 선보였음에도, 훨씬 더 오밀조밀하며 집약된 이 몬스터 같은 작품은 이미 누군가들에겐 송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본질적으로 팝 밴드에 가까웠던 이 듀오는 <Imaginal Disk>에선 그 너머 대안적인, 조금 더 얼터(alter)스러운 미지의 구상을 주력한다. 즉, 알아 보이지만 다분히 개념적이라는 것. 모든 트랙이 우주적으로 느껴지는 통일된 심상 아래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전개된다. 성충 원기(imaginal disc)는 녹지 않으며, 성기 · 항문 · 구강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신체 부위의 단초가 된다. <Imaginal Disk>는 이들의 최고작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멋진 프로덕션과 이와 완벽히 어우러지는 보컬의 교집합, 어째서 이 앨범이 ‘몬스터’ 같냐고 묻는다면, <Imaginal Disk>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마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재능 있는 듀오는 이보다 더한 작품을 끊임없이 재생산할 것이다.

by 스록산

W^Hous of Matters

지난호 보러가기





KILL THEM ALL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